

NYPI YOUTH REPORT

청소년리포트 창간호

ISSN 2005-9183



GO TO THE WORLD!
GO TO THE FUTURE!

기획테마 | 경제위기와 빈곤

미래세대 리포트 경제적 파장이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 | 김광웅 교수

조사통계 리포트 경제위기로 인한 아이들의 고통 | 오상현

정책제언 리포트 신빈곤층 아이들 통합지원 체계 구축대책 | 김한철

해외동향 리포트 프랑스의 복지정책 | 이혜연

청 소 년 리포트 아프리카 짐바브웨 빈곤의 현실과 해결책 | 전홍근

청 소 년 리포트 빈곤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자 | 이유진

칼럼 청소년가출예방을 위한 대책 | 유덕준 신부

NYPI YOUTH REPORT

NYPI YOUTH REPORT

vol.1 창간호 04/2009

발행일 | 2009.04.20

발행인 | 이명숙

편집인 | 이창호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전 화 | 02-2188-8860 팩스 | 02-2188-8869

디자인 | 김성희 www.kimsunghee.com

인 쇄 | 엘에스컴 02-2263-1992

홈페이지 | www.nypi.re.kr

ISSN 2005-9183

GO TO THE WORLD! GO TO THE FUTURE!

04  **발간사** 이명숙 원장

08  **미래세대 리포트** 경제적 파장이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_ 김광웅 교수(숙명여대)

16  **조사통계 리포트** 경제위기로 인한 아이들의 고통_ 모상현

30  **정책제언 리포트** 신빈곤층 아이들 통합지원 체계 구축대책_ 김현철

34  **해외동향 리포트** 프랑스의 복지정책_ 이해연

46  **청소년 리포터** 46 아프리카 짐바브웨 빈곤의 현실과 해결책 _ 전홍근(대원외고)
50 빈곤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자_이유진(해운대여고)

54  **칼럼** 청소년가출예방을 위한 대책_ 유낙준 신부(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57  **NYPI NEWS**



청소년이 곧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올해는 우리연구원이 20세 성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1989년 『청소년육성법』에 의해 ‘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출범하고 2007년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으로 명칭을 변경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20년간 900여권의 정책연구보고서와 20여권의 전문 교재를 발간했을 뿐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정책담당자는 물론 민간 부문의 청소년 연구와 활동 관련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11개국 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를 창립·운영함으로써 국제적 연구 및 교류·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이 수행한 많은 연구결과물의 홍보는 연구결과 보고서의 배포와 연구결과 요약집, 『미래세대리포트』 발간 등을 통해 이뤄져 왔습니다. 되돌아보면 국내외 청소년정책동향이나 정책을 소개하는 노력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스스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은 『NYPI Youth Report』 전문잡지발간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부기관과 시설·단체·지도자 뿐 아니라 학교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에게 연구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 잡지에 담은 내용으로는 『미래세대리포트』 코너에서 청소년관련 이론이나 기본개념, 철학, 『조사통계리포트』 코너에서 연구조사결과, 『정책제언리포트』 코너에서 정부나 민간기관, 시설 등에서 실시할 정책, 『해외동향리포트』 코너에서 외국의 청소년정책입니다.

또한 『Youth Reporter』 코너를 만들어 본원 청소년 리포터로 선정된 청소년들이 현안 이슈에 관해 직접 현장을 취재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칼럼』 코너에서는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싣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이 곧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 명 석

GO TO THE WORLD! GO TO THE FUTURE!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걱려**와 **지원**이 쏟아지길

IMF 경제 위기에 이어 최근 유례없는 경제 불황 때문에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현 경제위기상황에서 생활의 불안정성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경제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빈곤층이 겪고 있는 생활상의 문제 및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통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일탈행동, 정서·심리적 불안 같은 영역에서의 심각성 이외에, 부모의 돌봄, 의료혜택과 같은 기본적 욕구충족 조차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빈곤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그들의 상실된 마음까지도 어루 만져줄 수 있는 정서적 지원도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호는 경제적 위기와 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이번 호를 통하여 빈곤가정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걱려와 지원이 쏟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The Strategy for Youth Development to Cope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안내〉

본원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25일(목)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목적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아동과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글로벌 환경 변화 트렌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글로벌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등 6개 국가의 청소년인재개발전략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외협력팀(02-2188-8801)

Competence with Global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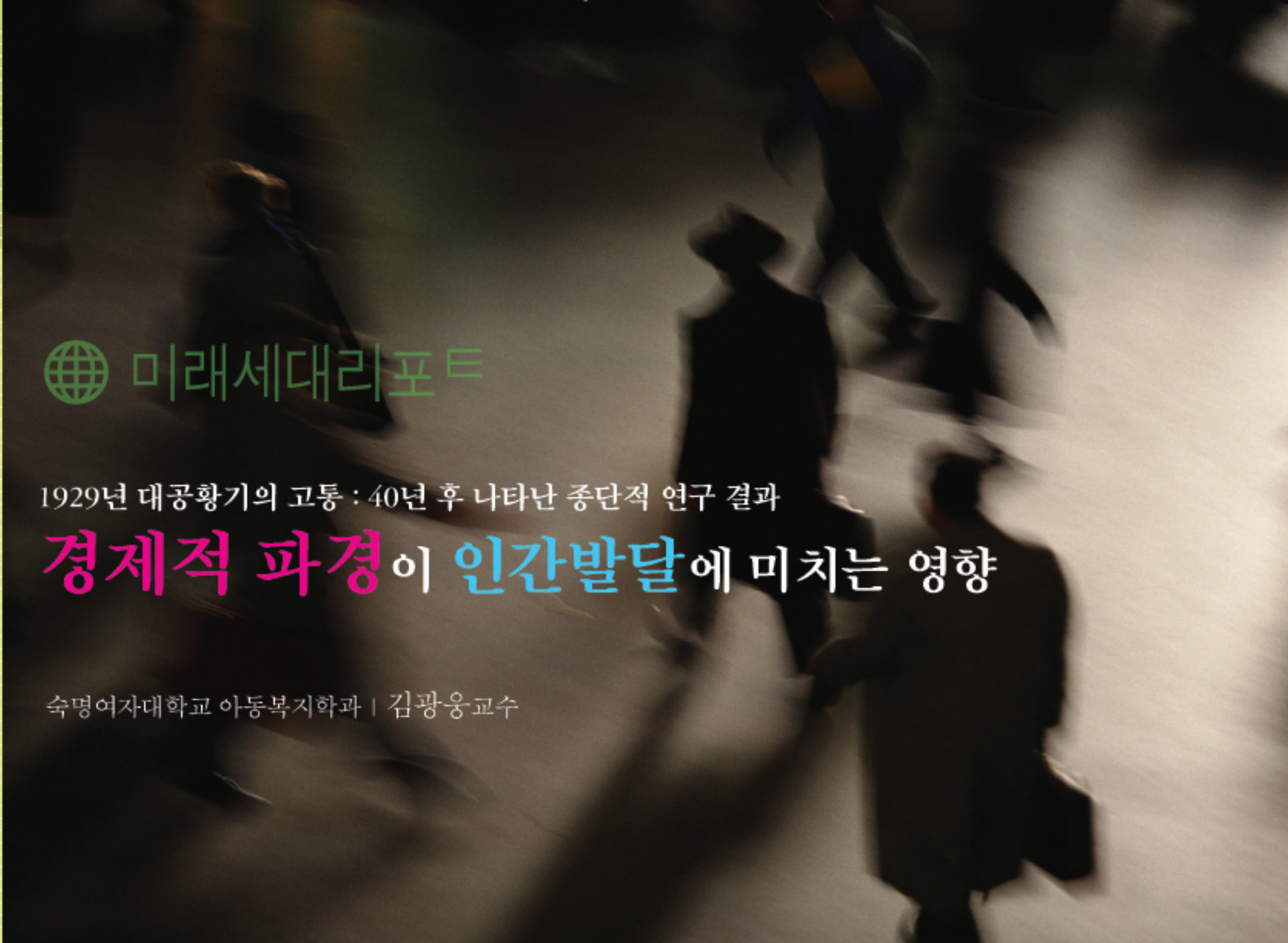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2009. 06. 25(thur) 14:00-18:00

장소 _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후원 _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건복지가족부

국제회의 주요 일정

일 시	내 용	
13:30 ~ 14:00	등 록	
14:00 ~ 14:20	개회식(개회사 및 축사)	
14:20 ~ 16:00 (100분)	■ 1 세션: 아시아·태평양 지역재개발전략	
	발표1	한국의 인재개발전략
	발표2	중국의 인재개발전략
	발표3	일본의 인재개발전략
	발표4	호주의 인재개발전략
16:00 ~ 16:10	휴 식	
16:10 ~ 17:30 (80분)	■ 2 세션: 북미·유럽 지역 인재개발전략	
	발표1	캐나다의 인재개발전략
	발표2	핀란드의 인재개발전략
	발표3	프랑스의 인재개발전략
17:30 ~ 18:00	질의응답 및 폐회	



미래세대리포트

1929년 대공황기의 고통 : 40년 후 나타난 종단적 연구 결과

경제적 과정이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김광웅 교수

1. 머리글

지속적이고 만성적이고 전반적인 빈곤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빈곤이 가족해체, 이혼, 신체적 학대, 아동유기 등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여러 연구들(Bakke, 1940; Kadushin & Martin, 1981 etc.)에서 실증적 조사에 근거하여 논의해 왔다.

한편,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이나 1997년 불어 닥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한파처럼,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도중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경제적 과정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이기 보다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특수한 연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김 광웅, 1998). 그러나 우리가 10년 전 겪은 악몽의 경제위기를 요즘

또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경제위기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또 상당히 자주, 경험할 것으로 예견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주제를 특수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인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주제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과정과 아동의 발달에 관한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Glen Elder(1974; 1978; 1979)이다. 사회학자인 Elder는 1962년 California Univ. -Berkeley의 '인간발달연구소' 에서 그로부터 31년 전인 1931년에 시작된 한 종단적연구 자료에 접하게 되었는데, 이 연구의 대상(1920~21년생)은 1962년 당시 40대였으며, 이들은 10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대공황(1929~1939년)을 겪었던 사람들이었다. 당시 California Oakland 에 거주하던 167명의 연구대상 아동(Elder는 이를 Oakland Cohort 로 명명)과 그 가족들은 모두 똑같이 대공황을 겪었지만, 대공황으로부터 받은 사회적/심리적 타격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Elder는 이들을 10여 년간 추적하여 대공황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 생애의 전 과정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사회학자였기 때문에, 당초엔 가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회학에서 범하기 쉬운 사회적·제도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학의 주 관심사인 울창한 숲을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속에서 자라는 각각의 나무(개별 아동)도 함께 연구하였다. 1974년에 출판된 이 연구 보고서는 대공황기의 경제적 파장이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가 되었다. 이후 Urie Bronfenbrenner(1979)는 유명한 그의 ‘인간발달에 관한 생태학’ 연구에서 거시체계가 인간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대표적 사례로 Elder의 연구를 인용하였다.

Elder는 그 후 Rockwell 과 함께 1928~29년에 태어난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또 다른 종단적 연구자료를 분석하게 되었는데, Oakland 연구대상보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였던, 이들 연구대상(Berkeley Cohort로 명명)은 대공황이 극에 달했던 시기(1932년)에 유아기를 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Elder는 대공황기에 10대 청소년기를 보낸 연구대상(Oakland Cohort)과 유아기를 보낸 연구대상(Berkeley Cohort)을 유사한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1978년에 보고되었고, 대공황기의 아동발달에 관한 1974년 연구결과를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Elder는 이후 경제적 압박과 가족 그리고 아동발달에 관련된 수편의 연구(1984; 1985 등)를 수행하였으며, 1989년에는 동료들과 함께 유아기에 대공황을 겪은 Oakland Cohort를 대상으로 재분석을 시도하여, 가정의 실직으로 인한 가족의 수입격감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관계, 자녀의 신체적 매력, 그리고 자녀의 성(아들 또는 딸)이 어떤 중재적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고 이는 1974년과 1978년 연구를 보완하는 자료가 되었다.

Elder는 그 후에도 동료들과 함께 경제적 압박과 청

소년들의 친사회적 행동과 부적응 문제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중재과정 모형을 이론적으로 상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대상은 미국 중서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7학년 남아들과 그 형제들이었다. 미국 중서부 농촌지역은 1980년대에 대단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역경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and Whitbeck, L. B., 1992). Elder 등이 1970~80년대에 수행한 연구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Lempers, J. D., Lempers, C. D. 그리고 Simons, R. L.(1989)은 미국 중서부 농업지역에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였던 1980년대의 농업위기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Elder 등의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경제적 위기가 청소년의 우울과 고립감의 증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경제파탄으로 인한 부모들의 양육부진과 훈육의 일관성 결여가 청소년들의 비행과 약물남용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경제적 위기 또는 경제적 파탄이 가족관계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들(예를 들면; Angell, R. C., 1965;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1997; Conger, R. D. et al, 1990; Conger, R. D. et al, 1991; Conger, R. D. et al, 1993; Elder, G. H., Jr., Conger, R. D., 2000; Ho, C. H., 1995; Siegal, M., 1984; Lempers, J. D., Clark-Lempers, D., 1990; Lempers, J. D., Clark-Lempers, D., 1997; Skinner, M. L., Elder, G. H. & Conger, R. D., 1992; Xiaojia, G. H., 1994)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대공황과 1980년대 농업위기를 맞이했던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이다. 1970년대 영국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경제위기가 있었고, Mexico도 우리와 유사한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바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 수행된 경제위기와 아동발달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 접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IMF

한파를 겪었지만 아직 종단적으로 수행된 연구가 체계적으로 보고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작금의 사태에 적용하여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변화와 문제를 예견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만일 호의적 영향이 있다면 이를 극대화하는 사회적, 교육적, 가정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에 본 고에서는 Elder 등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경제적 위기가 가족과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정리하고 몇 가지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2. 대공황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Oakland Cohort(1920~1921년생)에서 얻은 연구결과

1) 세계 대공황과 같은 거대한 사회 경제적 격변과 침체로 인한 타격은 가족 그리고 부모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은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2) 한 사회가 겪는 경제적 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타격(소득 감소와 부도/ 파산 등)과 사회적 타격(가장의 실직과 가족 해체 등)을 받은 가정의 아동뿐 아니라, 전혀 그러한 타격을 받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Elder 연구의 Oakland 표집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대공황 중 전혀 경제적 고통을 겪지 않은(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집단) 가정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된 후 나타낸 모습은 오히려 부정적이었다. 그들은 대공황기의 특권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상 여러 가지 증후와 적응력 결핍에서 노동계층의 자녀들과 유사한 현상을 보였다. 대공황기의

사회경제적 고통을 경험했던 중류계층의 다른 가정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은 교육적·직업적 성취수준이 낮았고, 과음 등과 같은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비율이 거의 두 배(43% 대 24%)나 높았다.

3)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변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의 연령, 자녀의 성별, 가족관계(가족 간 애정과 응집력), 자녀의 성격 특성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였다.

4) 사회경제적 위기에 의한 결핍가족에서 나타난 단기적 효과는 부모들의 심한 정서적 불안이었고, 이러한 긴장과 불안은 특히 노동계층에서 현저하였다. 부모들이 경험한 긴장과 불안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급속하게 전달되었으며, 아이들은 부모의 불행을 감지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반응을 보였다.

5) 다음으로 중요한 단기적 효과는 경제적으로 심하게 타격을 받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지위는 하락하고 어머니의 지위는 우세하게 나타났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중요성을 크게 지각하는 반면 아버지의 지위는 낮게 평가하였다. Elder는 이러한 현상을 아버지의 “역할실패”로 설명하였다. 즉, 경제적 책임의 전이가 빚은 결과라는 것이다.

6) 어머니의 지위 상승과 더불어 부모 선호도에도 변화가 일어나, 경제적으로 결핍된 가족의 아동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7) 경제적 역경은 결핍가정 아동의 또래 지향적 태도와 행동을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친구 지향적 태도는 결핍된 가정의 남아들에게서 두드러졌다.

8) 대공황기 아동들에게서 나타난 가장 현저한 변화의 하나는 가사에 대한 참여와 집박의 일에 대한 참여 정도의 변화였으며, 이는 남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여아女兒는 가정에서의 역할에 더 많이 참여하였으며 남아男兒는 집밖의 일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였다. 경제적 결핍을 겪지 않은 가정의 여아는 50%가 집안 일에 참여하였으나, 결핍가정의 여아는 90%가 집안 일을 하였다. 남아들은 비결핍 가정의 42%가, 결핍 가정의 65%가 월급을 받는 바깥일에 참여하였다.

9) 아버지가 실직한 가정의 아동들은 성인 지향적 태도가 증가하였다.

즉, 그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성인을 사귀려하고 성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성인 주변을 맴돌고, 성인의 행동을 동일시하고, 성인들에게 매우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10) 가정의 경제적 역경과 조기취업은 아동들의 직업동기와 포부를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직업을 가지려는 동기가 증가하고, 고등학교 남아들은 야심적인 포부를 갖게 되었으며,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려는 강한 욕구가 형성되었다.

11) 사회경제적 위기와 결핍의 장기적 효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성性に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결핍된 가정의 남아들은 비결핍 가정의 남아들보다 청소년 후기에 직업적 관심이 성숙했고 확고한 직업적 결정을 내렸다. 성인기에 들어서서는 보다 젊은 나이에 안정된 직업정신으로 착실한 경력을 쌓아갔으며, 직업 성취도成就度도 높아 청소년기에 선호했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적 장기효과는 공황기 이전에 중류층에서 자란 남성들에게서 보다 현저하였다. 그들은 정신적 건강과 정신적 능력에서도 어느 집단보다 우수하였으며, 가족 중심적이어서 사회활동보다는 가족활동을 좋아하고 자기 자녀를 만족의 근원으로 받아들였다.

12) 반면, 노동계층의 남아들은 성인이 된 후 중류층보다 불리한 상태에 빠졌다.

즉, 직업적 동기는 중류층과 마찬가지로 높았으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심리적 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과음자의 비율은 43%에 이르렀다.

13) 경제적으로 고통 받았던 가정의 딸들은 아동기 때 자신의 어머니들이 그랬듯이 모성적 역할에 충실하였다.

대학에 들어간 비율은 비 결핍 가정의 딸들보다 낮았으나, 중상류층과 결혼한 비율은 높았으며, 결혼 후 또는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와 자녀양육에 충실하였다. 그들은 살림하기를 즐겼으며, 자녀의 가치를 중시하였다.

3. 대공황기에 유아기를 보낸 Berkeley Cohort(1928~1929년생)에서 얻은 연구결과

1) 경제적 결핍을 경험한 연령은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유아들은 청소년들보다 경제적 역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더 심한 취약성을 갖게 된다.

Elder와 Rockwell(1978)은 1928~1929년에 태어나 대공황기에 유아기를 보낸 Berkely Cohort(1928~1929년 출생)를 대공황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Oakland Cohort(1920~1921년 출생)와 비교한 바, 가정의 경제적 고통은 청소년기에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중류층 남아들의 발달에는 긍정적 영향을 많이 준 반면, 대공황기에 유아기를 보낸 남아들에게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유아기에 경제적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성장한 후에도 자존감이 낮았고, 역경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며, 약속을 기피하고, 자기패배의식과 피해의식이 높았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남자들은 이러한 특징이 심하지는 않았으나, 일찍 직업전선에 들어갔으며 육체노동자의 비율이 높았고, 직장을 자주 옮기는 등 불안정한 취업태도를 보였다. 대공황기에 유아기를 보낸 Berkely 표집을 조사

한 바에 의하면, 결핍가정출신들은 비결핍가정 출신보다 건강상의 문제가 많았으며(64% : 41%), 만성적 피로와 기력 부족(46% : 20%), 과음이나 습관성 음주(44% : 26%)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Berkely Cohort(즉 대공황기에 유아기를 보낸)의 결과는 대공황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Oakland Cohort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발달현상을 보여주었다.

2) 그러나, 유아기에 대공황을 경험했던 젊은이들에게 나타난 부정적 영향은 아들(男兒)들에게서만 두드러진 것이었으며, 여아(딸)들에게서는, 그 정도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반대 방향의 결과가 나타났다.

즉, Elder와 Rockwell(1978)의 분석에 의하면, Berkely Cohort의 여아들은 경제적으로 결핍된 가정에서 비교적 잘 적응했고, 오히려 경제적 결핍이 없었던 가정의 여아들보다 더 목표 지향적이고 자기주장적이었으며, 자기만족을 추구할 줄 아는 젊은이가 되었다. 또한 가정내 경제적 결핍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Berkely 여성들은 유능하고 인간적 자원이 풍부한 청소년으로 자라났다. 남여에 따른 이러한 차별적 결과에 대해, Elder는 아들과 딸이 갖게 되는 부모자녀관계의 독특성으로 설명하였다. 즉, 아들은 가정에 경제적 문제가 닥쳤을 때 아버지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유대가 약해졌으며,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도 받지 못한 반면, 딸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유대가 약해진 만큼 어머니와의 유대는 더욱 강해진 탓이라고 설명하였다.

3)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중재변인은 부모의 부부관계였다.

즉 아버지가 가족의 부양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부자관계와 부녀관계를 결정짓는 주요 중재변수는 결혼관계의 강도와 아내의 지지도였다. 부부사이의 원만한 조화를 이루고 지지적이었을 때에는 경제적 문제는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원만하고 지지적인 부부관계를 갖지 못했던 경제적 결핍 가정의 딸들은

경제적 결핍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의 딸들보다 어머니와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었다. 또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가정의 아들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상실했으며, 특히 아버지와 관계에서 더욱 심한 손상을 입었다.

4. 대공황기의 연구 이후

1990년대에 발표된 연구의 결과

1)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아들보다는 딸에게 더 심각할 수 있다.

1970년대 이루어진 Elder의 초기연구에 이어 이루어진 추후연구(1985)에 의하면, 경제적 결핍을 경험했던 가정의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다. 즉,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아버지의 거절행동은 딸에게 더 집중되었는데, 이는 주로 매력적인 신체적 조건(매력적인 피부색, 예쁜 몸매와 용모, 여성적 체격과 행동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심각했다. 매력적인 딸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대접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은 가계소득의 감소에 따라 별로 변화되지 않았다.

2) 청소년의 비행과 약물복용 등은 가정 경제 파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대공황 이후 미국의 최대 경제적 위기로 알려진 1980년대(주로 1980~1982) 중서부 농업지역에서 당시의 경제적 결핍이 청소년들의 비행과 어떤 연관을 갖는가를 연구한 Lempers, J. D. 등(198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정경제의 파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호행동을 줄이는 반면 일관성 없는 훈육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러한 부모 양육행동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비행과 약물복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우울과 소외감은 가정의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계수입 감소나 고용불안과 같은 객관적 경제 지표는 생활비 조달의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경제 행위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통해서 부모들의 정서적 불안정과 부모행동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1980년대 미국 중서부 농업지역의 경제적 위기와 청소년들의 적응과의 관계를 가족과정모델 Family Process Model로 검증한 Conger, R. D. 등(1992)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들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하여 우울과 부도덕성이 증가하고, 이는 부부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부모 양육행동에 손상을 입히게 되며, 이는 다시 청소년 자녀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부적응문제를 야기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는 마찬가지로 경제적 고통에 의해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일으키고, 동시에 양육행동도 손상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4) 부모의 실직이나 하향 전직은 청소년들의 포부수준을 변화시킨다.

1980년대 초 미국 중서부지역에서 2~3년간 일시적으로 경제적 역경을 경험한 6학년 아동들의 사회화 과정을 연구한 Flanagan, C. A.(1990)의 횡단적 조사 연구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제적 실패로 인한 부모역할의 변화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즉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Flanagan(1990)은 동시에 수행한 2년간의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아동들의 성장과정을 추적한 바, 부모의 급작스런 실직이 청소년 자녀들의 발달적 요구를 손상시키기는 하지만, 부모의 재취업 후에는 부모-자녀 관계에 생겼던 초기의 긴장이 해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사와 교장들로부터 수집된 질적 연구 자료를 분석한 바, 경제적 역경 시기에는 학교도 기회균등의 원칙을 모든 학생들에게 실현시키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5) 독일(서독)에서도 1980년대 초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가정을 종단적 연구로 조사한 바, 일시적일지라도 가계수입의 급격한 감소는 가족의 결속과 통합을

손상시키고, 부부간의 갈등과 긴장을 증가시키는 반면 어머니의 의사결정권은 강화되었다. 또한 부모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의 경우 가족결손으로 인한 손상은 청소년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을 떨어뜨린 반면 규칙과 사회규범을 무시하는 경향은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Silbereisen, R. K. et al., 1990).

5. 맺는 말

이상에서,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밀어닥친 경제적 파탄과 역경이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해보기 위해서 1930년대 대공황과 1980년대 경제위기를 경험한 미국 등 서양에서 연구된 여러 자료를 요약해서 검토해 보았다.

우리의 사회 문화적 처지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대공황시의 미국 상황과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연구결과를 그대로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사회가 반복해서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관련지어 추론해 보면 몇 가지 가설적 결론들을 도출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첫째, 경제적 역경과 위기는 부모의 가출 등 극단적인 가정파탄으로부터 부부갈등, 부부역할과 지배구조의 변화 등 가족 구조와 기능에 여러 형태의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부모행동 및 양육태도의 부정적 변화도 함께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위기가 가족결손과 부모행동에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Elder등 미국의 연구에서도 밝혀졌지만, 경제적 위기가 가족과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위기를 겪기 전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가 얼마나 건강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특히 어머니의 중재적 역할과 지지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광웅 (1998). 경제위기와 아동. 한국아동학회 1998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 한국아동학회.
- Angell, R. C. (1965). The nature of human conflic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kke, E. W. (1940). Citizens without work.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nger, R. D.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3), 643-656.
- Conger, R. D., Lorenz F. O., Elder, G. H., Jr., Melby, J. N., Simons, R. L. (1991). A process model of family economic pressure and early adolescent alcohol us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t*, 11(4), 4a30-449.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54.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Withbeck, L. B. (1993). Family economic stress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206-219.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1997).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Russell sage Foundation.
- Elder, G. H., Jr. (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lder, G. H., Jr. (1979). Historical change in life patterns and personality. In P. Baltes and O. Brim. (Eds.). *Life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2, pp. 117-159). New York: Academic Press.
- Elder, G. H., Jr., Caspi, A., & Van Nguyen, T. (1985). Resourceful and vulnerable children: Family influences in hard times. In R. Silbereisen & H. Eyferth(Eds.), *Development as action in context* (pp. 167-186). Berlin: SpringerVerlag.
- Elder, G. H., Jr., Liker, J. K., & Cross, C. (1984). Parent-child behavior in the Great Depression: 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In P. B. Baltes & O. G. Brim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6, pp. 109-158). New York: Academic Press.
- Elder, G. H., Jr., Van Nguyen, T., & Caspi, A.(1985). Linking family hardship to children's lives. *Child Development*, 56, 361-375.
- Elder, G. H., Jr., and Rockwell, R. C. (1978). Economic depression and postwar opportunity in men's lives : A study of life patterns and health. In R. A. Simmons (Ed.). *Research in community and mental health* (pp. 240-303), Greenwich, Conn.: JAI Press .
- Elder, G. H., Jr., Conger, R. D. (2000). *Children of the land : Adversity and success in rural Ameri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lanagan, C. A. (1990). Families and schools in hard times. In V. C. Macloyd and C. A. Flangan (Eds.). *Economic stress : Effect on family life and child development*. (pp7~26). Sanfrancisco : Jossey - Bass.
- Ho, C. H., Lempers, J. D., Clark-Lempers, D. S. (1995). Effects of economic hardship on adolescent self-esteem: a family mediation model. *Adolescence*, 30(17), 117-131.
- Kadushin, A., & Main, M. (1981). *Child abuse: An interactional ev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s, R. L.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Lempers, J. D., Clark-Lempers, D. S. (1990). Family economic stress, maternal and paternal support and adolescent distress. Iowa State University.
- Lempers, J. D., Clark-Lempers, D. S. (1997). Economic hardship, Family relationship, and adolescent distress : an Evaluation of a stress-Distress mediation model in mother-daughter and other-son dyads. *Adolescence*. 32.
- Siegal, M., Cowen, J. (1984). Appraisals of intervention : The mother's versus the culprit's behavior as determinants of children's evaluations of discipline techniques. *Child development*. 55(5), 1760-1766.
- Silberreisen, R. K., Walper, S., & Albrecht, H. T. (1990). Family income loss and economic hardship: Antecedents of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In V. C. Macloyd and C. A. Flangan (Eds.). *Economic stress : Effect on family life and child development*. (pp27~48). Sanfrancisco : Jossey - Bass.
- Skinner, M. L., Elder, G. H., Jr., Conger, R. D. (1992).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adolescent agg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3), 259-279.
- Xiaojia, G. E., Lorenz, F. O., Conger, R. D., Elder, G. H., Simon, R. L. (1994). Trajectories of stressful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4), 467-483.



축하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청소년들의 시각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지면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청소년 리포터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본원 **리포터로 선정된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 이슈에 관해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을 누비며 취재를 할** 예정입니다.

열정과 패기, 젊음으로 뭉친 청소년리포터들의 활약에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리포터 명단〉

명 단	소속학교	취재분야
전홍근	대원외고	빈곤
이유진	해운대여고	빈곤
김지민	부산국제외고	다문화/탈북
이지은	대원외고	다문화/탈북
차욱현	불곡고	글로벌 역량
김태영	청심국제고	글로벌 역량
이수빈	한국외대부속용인외고	특성인/인재개발
이준아	민족사관고	특성인/인재개발
차현정	함지고	인권
김희망	영광해룡고	인권
채나연	성남외고	정보화
이소윤	이우중	정보화

경제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고통실태¹⁾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모상현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2008년 이래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층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의 실태와 욕구를 조사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최근 급속히 악화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현재 그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본 연구는 현 경제위기상황에서 생활의 불안정과 빈곤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경제·신체·정신적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그들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가늠해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조사항목

본 설문지의 문항 구성 체계는 2008년 하반기 몰아닥친 경제 위기 이후 한 학기 동안의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경제·신체·정신적 고통과 실태 및 욕구를 조사하기 위해 전체 4개의 대분류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조사항목 중 일부는 기존에 사용했던 문항들을 현 설문지 체계에 맞도록 재검토하여 사용하였다. 2009년 빈곤 아동·청소년 경제위기 조사지표와 세부적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본 논문은 2009년 2월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최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제하의 세미나 자료집에서 본인의 논문 일부를 발췌·개정하여 수록한 것임.

[표 1] 2009년 경제위기 설문지 문항 구성 체계

대분류	조사영역	세부내용	참 고
I 기초생활	의료·보건	8. 질병 종류 및 치료 유·무 8-1. 치료받지 않은 이유	'06 3번 선택지 보완 ²⁾
	정서적 건강	11. 자아존중감 ³⁾ 12. 사회심리적 적응 ⁴⁾	'06 4번, 5번 수정
	경제위기에 따른 변화	9. 4단계 척도 1)~6) 심리적 변화(6) 7)~16) 생활상의 변화(11) 17)~20) 가족관계의 변화(4) 10. 그렇다/그렇지 않다 1) 생계형 아르바이트 시작 2) 경제문제로 가족해체 3) 부모 실직 4) 생계형 성매매 시도	'99 ⁵⁾ 문항 : 7)~9), 11), 14)~17), 19) * 타 영역 중 유사문항도 있으나 이 부분에서는 특히 경제위기 이후 변화에 초점 두어 질문
		16. 생활비나 용돈마련 방법	'06 61번 문항축소
		13.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⁶⁾	'06 12번 문항축소
II 사회지원 체계	가족	13.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⁶⁾	'06 12번 문항축소
	학교	14. 학교 선생님 관련 긍정적, 부정적 경험	'06 16번 문항축소
		15. 지역사회 의식 및 경험 ⁷⁾	'06 17번 문항축소
III 교육·문화·사회 서비스	비행	17. 흡연, 음주, 절도, 폭력, 결석, 가출, 성인사이트 접속 경험(한 학기)	'08복지부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수정(한 달 이내)
	교육	18~19. 학교생활 부적응과 결석 이유(한 학기) 20. 대학진학 가능성 여부와 이유	'06 23~24번(지난 1년간) 선택지 수정
	정보·문화	21. 인터넷 가능 컴퓨터 보유현황 22. 휴대폰 보유 여부	'06 28~29번 수정
	여가활동	23. 현재 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 24. 여가활동 장애 요인	'06 31~32번 수정
	복지서비스	25.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6. 복지서비스 이용 시 느낌	서울아동패널10번 '06 36번 문항축소

■ 조사방법

본 조사를 위한 대상으로 서울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해당지역은 주로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서민층 주거시설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보여준다. 엄밀한 의미에서 조사의 객관적 타당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표집선정이 전국 단위에 기초한 확률표본 추출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지만, 본 조사에서는 시안의 시급성과 시간적 제약으

2) 김정준 외(2006). 청소년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3)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strument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Morris Rosenberg.

4) Achenbach, T. M.(1991). 아동용 행동 체크리스트(Child Behavior Check List : CBCL)중 우울에 관한 문항을 사용함.

5) 황창순·이혜연·김희진(1999).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와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6) Straus(1990). 갈등전술척도(Conflict Tactics, CT)와 중앙 아동학대예방센터(2002). 아동학대척도를 사용함.

7) Sampson, Raudenbush, & Earls(1997). 지역사회응집력 척도

로 인해 이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비록 조사지역을 전국단위가 아닌 서울시 특정 지역에 한정시켰고, 본 조사목적을 반영해 저소득층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의표집이 이루어졌지만, 표본의 선정은 부분적으로 층화표본추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① 표집지역 및 표본추출

빈곤 아동·청소년의 표집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 재산세 납부 순위 2) 재정자립도 비율 3)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대상과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하위 7개 자치구가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평가기준에 따른 하위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2] 표집 기준 및 지역

평가기준	지 역
2008년 재산세 하위 5개 자치구	강북구(최저)→금천구→중랑구→도봉구→은평구
2008년 재정자립도 하위 5개 자치구	노원구(최저)→중랑구→관악구→은평구→강서구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대상지역	강서구, 양천구, 강동구, 관악구, 은평구, 강남구, 영등포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위의 결과를 기초로 빈곤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표집지역으로 선정된 저소득층 자치구는 [표 1-3]에 기술되어 있다.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 및 재정자립도 기준으로는 중산층 거주 지역에 속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의 규모가 다른 자치구보다 크다는 사실에 기초, 해당 임대주택 단지지역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선정·추가하였다.

[표 3] 2009 빈곤아동·청소년 실태 및 욕구 조사 지역

지 역	표집 근거
①번 은평구, 중랑구 ②번 강북구 ③번 노원구, 관악구, 강서구	총 6개 자치구 내에서 특히 저소득 밀집지역 학교 표집
④번 강남구	재산세, 재정자립도로 저소득지역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있는 곳 중 임대주택 규모가 큰 지역임
전체 표본은 강남/북, 강서/동 등 서울전역에서 골고루 표집하여 총 7개 자치구로 구획함	

표본 추출을 위해 선정된 학교 수는 초등학교·중학교 각 7곳, 총 14교에 달하며([표 1-4] 참조), 조사는 2009년 2월 초에 시작하여 약 1주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 응한 초·중학생의 총 수는 814명이었다.

②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은 395명으로 전체의 48.5%였으며, 여학생은 419명으로 51.5%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약간 더 높았다. 교급 별로는 초등학생 405명으로 전체의 49.8%, 중학생은 409명인 50.2%로 교급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가정의 경제수준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814명 모두 결측 없이 답변에 응답했지만, 부모의 결혼 상태에 대한 질문의 경우 무응답 비율이 5%인 41명, 부친의 학력수준은 36.4%에 달하는 296명, 모친의 학력수준

에 대한 무응답 비율도 부친에 대한 무응답 비율과 비슷한 37.6%로 306명에 이르고 있다. 경제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자신의 가정이 빈곤층에 속하는 ‘어려운 편이다’가 202명(24.8%), ‘보통이다’가 590명(72.5%)에 달하는 반면, 중산층 이상인 ‘잘사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7%에 불과한 22명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의도한 유의추출에 의한 저소득층 중심의 표집방식이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4] 2009 빈곤아동·청소년 실태 및 욕구 조사 학교명단

지역	학교	소재지
은평구	A초등학교 B중학교	서울 은평구 서울 은평구
중랑구	C초등학교 D중학교	서울 중랑구 서울 중랑구
강북구	E초등학교	서울 성북구
은평구	F초등학교 G중학교	서울 노원구 서울 노원구
관악구	H초등학교 I중학교 J중학교	서울 관악구 서울 관악구 서울 관악구
강서구	K초등학교 L중학교	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구
강남구	M초등학교 N여자중학교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2. 조사결과

2008년 하반기 이후 한 학기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기초생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정서적 건강정도 그리고 경제위기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변화의 양상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실태 조사를 위해 설정될 독립 변수 중 특별히 경제수준 요인이 집단 간 분석을 위한 중요 변수로 고려 될 수 있다. 서두에 밝혔듯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고등수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빈곤집단⁸⁾을 비(非)빈곤 집단으로부터 정확히 분류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경제수준 요인은 이를 탐색 할 수 있는 유의한(relevant) 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분석결과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됐다.

■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건강 실태

첫째, 아토피·습진·부스럼 같은 피부질환의 경험 유·무는 아동·청소년들의 경제수준 정도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수준 별 조사결과 빈곤층에 속하는 아동이 피부질환을 앓은

8) 표집대상 지역이 서민층 거주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그 중에서도 경제형편이 ‘어렵다’는 가정은 ‘빈곤’으로 ‘보통이다’는 비(非)빈곤 집단인 ‘중간층’로 분류했다. 중산층 정도를 의미하는 ‘잘사는 편이다’는 전체 표본의 3%미만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했다.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3.0%)이 경제수준이 보통인 아동(0.7%)의 응답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둘째, 백혈병·암 혹은 만성질환의 발병비율도 경제적으로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의 7.4%가 해당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경제수준이 보통인 집단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경험 있음`에 응답한 비율은 3.6%에 그쳐 2배 이상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5]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질병 경험

단위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1) 피부질환 (아토피, 습진, 부스럼 등)	경제 수준	어렵다	97.0	3.0	100(202)
		보통	99.3	0.7	100(590)
2) 백혈병, 암 혹은 만성 질환	경제 수준	어렵다	92.6	7.4	100(202)
		보통	96.4	3.6	100(590)

1) * 2 = 6,343* 2) * 2 = 5,185*

[표 6]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경제수준 간 비교

단위 %

구 분		중세가 가벼워서	치료비가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의논할 사람 이 없어서	치료가 무서워서	귀찮아서	고쳐지지 않아서	약을 못 먹어서	집에서 쉬면 나을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집에 약이 있어서	전체
전 체		56.5	6.2	1.2	0.6	1.2	28.0	3.1	0.6	1.2	0.6	0.6	100 (161)
경제 수준	어렵다	48.9	17.0	2.1	0	2.1	19.1	6.4	0	2.1	2.1	0	100 (47)
	보통	59.6	1.8	0.9	0.9	0.9	31.6	1.8	0.9	0.9	0	0.9	100 (114)

* 2 = 22,219*

다음은 한번이라도 특정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부상임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 아동·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살펴 볼 수 있었다(표 2). 세부 항목 중 특히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가 `치료비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빈곤층 아동·청소년 비율이 17%에 달해 경제수준이 중간인 집단(1.8%)에 비해 무려 9배 이상 높았다. `고쳐지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중간층(1.8%)에 비해 빈곤(6.4%)층 아동·청소년 집단에서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최근 경제위기 이후의 심리·생활상·가족관계 및 기타 변화양상

본 지표에서는 최근 경제 위기 이후 나타난 다양한 변화의 양상들을 심리적 변화·생활상의 변화·가족관계의 변화와 아동·청소년의 생활비나 용돈 마련 방법 등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 있다. 대부분의 하위문항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빈곤 아동·청소년과 중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① 심리적 변화

첫 번째 경제 위기가 가져온 심리적 변화를 묻는 문항 중 `더 외로움을 느낀다`에 응답한(대체로 그

렇다'와 '매우 그렇다')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24.7%로 중간층(14.9%) 보다 10%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두 번째 문항 '나는 걱정이 많아졌다'에 대해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 53%로 경제수준 중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36.3%) 집단에 비해서는 무려 17%가량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자신감의 정도를 묻는 항목에 대해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27.4%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반면 경제수준 중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 집단은 16.6%만이 동일 응답 경향을 나타냈으며 전자가 11%나 높은 수준을 보였다.

네 번째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경제수준이 중간층인 아동·청소년 집단의 8.4%가 이를 긍정 하는 쪽으로 보고한 반면 빈곤층 아동의 동일 문항 응답 비율은 18.8%로 전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주관적 차별과 무시에 대한 반응 경향을 빈곤층 집단에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섯 째 아동·청소년의 가출관련 질문에서 가정 경제수준 변인에 따른 빈곤층과 중간층 간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 빈곤층은 21.8%, 중간층에서는 9.9%의 아동·청소년들이 가출 항목에 대해 긍정적 답변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전자가 후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가출성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항목에 대해 경제수준에 따른 빈곤(25.9%) vs. 중간(13.2%) 집단 간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빈곤층 아동 청소년의 경우 편부모 집단(26.1%) 아동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서적 동요와 불안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경제위기에 따른 심리적 변화

단위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 더 외롭다고 느낌	경제 수준	어렵다	35.6	39.6	16.3	8.4	100(202)
		보통	42.5	42.7	13.0	1.9	100(586)
2) 걱정이 많아짐	경제 수준	어렵다	19.3	27.7	35.1	17.8	100(202)
		보통	25.6	38.1	30.0	6.3	100(586)
3) 자신감이 없어짐	경제 수준	어렵다	32.8	39.8	20.9	6.5	100(201)
		보통	38.6	44.9	14.0	2.6	100(586)
4)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이나 무시당함	경제 수준	어렵다	44.1	37.1	10.9	7.9	100(202)
		보통	56.2	35.4	6.5	1.9	100(585)
5)가출하고 싶다는 생각	경제 수준	어렵다	49.0	29.2	14.9	6.9	100(202)
		보통	58.7	29.4	9.2	2.7	100(586)
6) 죽고 싶다는 생각	경제 수준	어렵다	43.3	30.8	16.4	9.5	100(201)
		보통	54.3	32.6	10.6	2.6	100(586)

1) * 2 = 21,371*** 2) * 2 = 29,735*** 3) * 2 = 13,161** 4) * 2 = 24,095***
5) * 2 = 13,950** 6) * 2 = 24,336***

② 생활상의 변화

경제위기 이후 지난 한 학기동안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한 생활상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가 항목별로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항목분석을 통해 유의하게 검증된 변인 수준 간 분석결과가 제시되었으며 경제변인(빈곤 vs.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이 대부분 생활상 변화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 구입관련 문항에서 구입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아동·청소년들 중 빈곤층에 속하는 응답자는 중간층 아동·청소년의 4.9%에 비해 대략 2배에 달하는 11%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의 응답 경향을 보여주었다.

둘째 경제적 빈곤층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이 경제 위기 이후 방과 후 학원 혹은 과외 교습을 중단하게 된 비율은 22.3%로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11.6%)에 비해 11%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셋째 문화·수련활동 같은 여가 활동이 줄었거나 중단된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21.7%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으로 답변한 반면 중간층 아동·청소년의 답변 비율은 12%이상 높은 9.2%로 매우 낮았다.

넷째 ‘용돈이 줄었다’ 항목에 대한 응답 경향을 살펴본 결과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용돈 감소에 대한 평가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27.2%)은 중간층 집단(14.5%)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자신의 용돈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경제 위기 이후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가사의 증감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변인의 수준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빈곤층 응답자의 32.9%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으로 답변한 반면 중간층 소속 응답자는 18.3%만이 이에 긍정하는 답변 경향을 보였다.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가사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경제위기에서 생필품에 대한 지출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31.3%가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이 대체로 줄었다라고 답변한 반면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21.5%만이 줄었다라고 응답했으며, 전자에 비해 10%이상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일곱째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병원치료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에 대해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5.5%가 부정적 방향으로 답변한 반면,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2.3%만 동일한 응답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층 응답자가 후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여덟째 지난해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 이사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을 묻는 질문에서 빈곤층은 9.9%가 이사 후 생활이 대체로 불편하다고 응답했는데 반해 중간층은 2.7%만이 동일 응답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이사로 인해 느끼는 주관적 불편감이 중간층 집단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아홉째 공공기관이나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빈곤층 응답자의 20.9%가 ‘대체로 그렇다’는 방향으로 답변했으며, 중간층 아동·청소년 응답자는 7%만이 외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외부 의존도에서 전자가 후자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상의 변화

단위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 필요물품을 사고 싶을 때 사지 못 함	경제 수준	어렵다	56.9	32.2	6.9	4.0	100(202)
		보통	65.1	30.0	4.4	0.5	100(587)
2) 학원이나 과외교습을 줄이거나 중단	경제 수준	어렵다	52.5	26.2	13.9	7.4	100(202)
		보통	66.1	22.3	9.4	2.2	100(584)
3) 여가 활동이 줄었거나 중단	경제 수준	어렵다	55.9	22.3	15.8	5.9	100(202)
		보통	61.2	29.6	7.8	1.4	100(587)
4) 용돈이 줄었음	경제 수준	어렵다	50.5	22.3	15.3	11.9	100(202)
		보통	62.5	23.0	10.5	4.0	100(582)
5) 부모님 대신 집안 일을 더 많이 하게 됨	경제 수준	어렵다	37.3	29.9	26.4	6.5	100(201)
		보통	42.5	39.2	14.0	4.3	100(586)
6) 옷이나 신발에 지출하는 비용감소	경제 수준	어렵다	34.3	34.3	22.9	8.5	100(201)
		보통	43.4	35.1	18.9	2.6	100(587)
7) 아픈 사람이 있어도 병원에 못 감	경제 수준	어렵다	73.1	21.4	5.0	0.5	100(201)
		보통	84.7	12.9	2.0	0.3	100(587)
8) 집을 줄여 이사하여 생활하기 너무 불편	경제 수준	어렵다	65.3	24.8	6.9	3.0	100(202)
		보통	77.3	20.0	2.0	0.7	100(586)
9) 이웃이나 친척,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음	경제 수준	어렵다	58.7	20.4	16.9	4.0	100(201)
		보통	78.2	14.8	5.3	1.7	100(587)

1) × 2 = 16,500** 2) × 2 = 19,666*** 3) × 2 = 25,786*** 4) × 2 = 22,451***
 5) × 2 = 19,426*** 6) × 2 = 17,082** 7) × 2 = 14,213** 8) × 2 = 21,567***
 9) × 2 = 38,600***

③ 가족관계의 변화

경제위기에 따른 세 번째 변화인 가족관계의 변화 양상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내용이 아래 일련의 표 속에 요약되어 있다.

먼저 가정의 수입의 감소로 인해 부모님 사이의 관계가 악화 되었다고 응답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응답비율은 22%로 중간층 아동·청소년 응답비율인 4.8%와 비교할 경우 무려 4배 이상 높았다. 경제 위기 이후 가정 소득의 감소로 인한 부모 갈등의 부정적 인식 정도가 빈곤층 아동·청소년에게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제 빈곤층 집단에서 부모·자녀 간 관계를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14.4%)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층 아동·청소년(5.2%)의 부정적 평가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았다.

셋째 경제위기가 가정 폭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의 11.4%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경제수준이 중간층인 아동·청소년 집단은 단지 2.3%만이 이에 상응된 응답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층에서 가정폭력의 경험 빈도가 현저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넷째 가정 내 경제적 상황 악화로 부모님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한 응답비율은 경제 빈

곤충 아동·청소년의 경우 무려 68.8%가 해당 문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반해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은 34.1%만이 이에 상응하는 답변을 보여주었다. 가정경제의 위기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가 중간층 집단에 비해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에서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9]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

단위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 수입 감소로 부모님 관계 악화	경제 수준	어렵다	54.5	23.5	18.0	4.0	100(200)
		보통	72.6	22.7	4.6	0.2	100(587)
2) 본인과 부모 관계 악화	경제 수준	어렵다	56.4	29.2	11.4	3.0	100(202)
		보통	73.3	21.6	4.3	0.9	100(587)
3) 가족 간 폭력과 다투는 일이 잦아짐	경제 수준	어렵다	65.3	23.3	9.4	2.0	100(202)
		보통	82.4	15.2	2.0	0.3	100(586)
4) 부모님이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심	경제 수준	어렵다	16.8	14.4	39.6	29.2	100(202)
		보통	33.9	32.0	29.5	4.6	100(584)

1) × 2 = 59,807*** 2) × 2 = 27,207*** 3) × 2 = 37,268*** 4) × 2 = 119,594***

④ 경제위기 관련 기타 변화

첫째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궁핍으로 생활비·용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경제수준변인에 따른 집단 간 응답비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6%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응답한 반면 중간층 집단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응답비율은 2.7%에 불과했다.

둘째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 구성원이 헤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8.9%가 헤어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간층 아동·청소년의 응답비율은 3.6%에 그쳤다. 빈곤층 일수록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 해체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가 시작 된 후 부모님의 실직 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대체로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빈곤층 집단은 11.4%, 중간층 집단은 3.4%의 비율로 나타났다. 빈곤층 아동·청소년 계층의 부모 실직율이 중간계층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빈곤층으로 갈수록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0] 경제위기에서의 기타 변화 양상

단위 %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1) 용돈과 생활비가 필요해 아르바이트 시작	경제 수준	어렵다	6.0	94.0	100(201)
		보통	2.7	97.3	100(588)
2)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이 헤어짐	경제 수준	어렵다	8.9	91.1	100(202)
		보통	3.6	96.4	100(588)
3) 최근 부모님이 일자리를 잃었음	경제 수준	어렵다	11.4	88.6	100(202)
		보통	3.4	96.6	100(588)

1) × 2 = 4,620* 2) × 2 = 9,134** 3) × 2 = 18,625***

■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사회지원체계

①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경제위기가 시작 된 이후 가족 내 갈등 및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아래 표에 기술되어있다.

먼저 폭력에 의한 신체적 체벌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8.5%가 6개월에 한번 이상 체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빈곤층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의 체벌비율(26.7%)은 중간층 집단의 비율(15.2%)에 비해 11% 이상 높았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일수록 신체적 체벌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둘째 부모로부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26.7%가 6개월에 한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중간층 반응비율 17.6%보다 9%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셋째 부모님으로부터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 같은 모멸감을 자극하는 언행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25.8%가 6개월에 한번 이상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중간층 응답자(17%)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넷째 부모님의 외출로 밤늦은 귀가시간까지 홀로 방치 된 적이 있는가에 대해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44.5%, 중간층은 41%가 6개월에 한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빈곤집단과 중간집단의 아동·청소년 간 차이는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표 11]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실태

단위 %

구 분			전혀 없었다	6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이상	전 체
폭력에 의한 신체적 체벌	경제 수준	어렵다	73.3	17.3	9.4	100(202)
		보통	84.7	11.0	4.2	100(590)
	* 2 = 14,404**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낌	경제 수준	어렵다	73.3	15.8	10.9	100(202)
		보통	81.4	13.2	5.4	100(590)
	* 2 = 14,404**					
모멸감을 자극하는 언행	경제 수준	어렵다	74.3	12.9	12.9	100(202)
		보통	83.0	11.5	5.4	100(589)
	* 2 = 14,404**					
홀로 방치	경제 수준	어렵다	55.4	15.8	28.7	100(202)
		보통	59.0	22.2	18.8	100(590)
	* 2 = 14,404**					
깨끗하지 않은 옷· 더러운 이부자리	경제 수준	어렵다	90.1	6.4	3.5	100(202)
		보통	95.3	3.9	0.8	100(590)
	* 2 = 14,404**					
부모님이 내가 열이 나거나 아파도 방치	경제 수준	어렵다	89.6	7.9	2.5	100(202)
		보통	95.8	2.7	1.5	100(590)
	* 2 = 14,404**					
부부간 모욕적 언행	경제 수준	어렵다	68.3	19.8	11.9	100(202)
		보통	83.2	13.9	2.9	100(588)
	* 2 = 14,404**					

1) * 2 = 59,807*** 2) * 2 = 27,207*** 3) * 2 = 37,268*** 4) * 2 = 119,594***

다섯째 가정의 청결과 부모의 관심을 나타내는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더러운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 되었다.

여섯째 ‘내가 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는지’ 같은 부모의 방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개월 간 한번 이상 방치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빈곤층 아동·청소년(10.4%)이 중간층(5.2%)보다 2배 이상 높은 빈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6개월 간 한 번 이상 부모님 간 모욕적인 언행을 행사한 것을 본적이 있는가에 대해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31.7%, 중간층 집단은 16.8%가 경험 한 적이 있음을 보고 했다.

② 용돈 마련 방법

용돈 마련 방법에 대한 질문 중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빈곤 집단은 13.4%로 중간층 집단(5.6%)에 비해 그 수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비행행동을 통해 용돈을 조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강탈(7.5%), 성매매나 원조교제(4%)를 통해서 조달한 적이 있다고 답해 중간층 집단의 3%,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2] 용돈수령·절도와 강탈·성매매나 원조교제

단위 %

구 분			전혀 없음	가끔	자주	전 체
1)부모로부터 용돈 수령	경제 수준	어렵다	13.4	32.3	54.2	100(201)
		보통	5.6	33.2	61.2	100(587)
2) 절도와 강탈	경제 수준	어렵다	92.5	4.5	3.0	100(199)
		보통	96.9	1.5	1.5	100(585)
3)원조교제나 성매매	경제 수준	어렵다	96.0	0.5	3.5	100(200)
		보통	97.8	1.4	0.9	100(584)

1) $\chi^2 = 13,244^{**}$ 2) $\chi^2 = 7,760^{*}$ 3) $\chi^2 = 7,834^{*}$

③ 비행행동 경험

흡연·절도·강탈경험 같은 비행행동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검정되었다. 빈곤층 집단의 경우 각 비행행동을 한두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1.9%, 16.9%, 12.3%였으며, 경제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은 7.3%, 8.6%, 4.6%로 두 집단 간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13] 흡연·절도 경험·강탈경험

단위 %

구 분			전혀 없음	1~2번	3~4번 이상	전 체
1) 흡연	경제 수준	어렵다	88.1	4.0	7.9	100(202)
		보통	92.7	4.6	2.7	100(589)
2) 절도	경제 수준	어렵다	83.2	11.9	5.0	100(202)
		보통	91.3	7.6	1.0	100(589)
3) 강탈경험	경제 수준	어렵다	88.1	8.4	3.5	100(202)
		보통	95.4	3.9	0.7	100(589)

1) $\chi^2 = 10,547^{**}$ 2) $\chi^2 = 15,723^{***}$ 3) $\chi^2 = 15,305^{***}$

■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사회서비스

①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학교생활적응과 대학진학 가능 여부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된 2008년 2학기 이후의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생활 적응도, 결석일수와 그 이유, 대학진학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학교생활 적응정도를 살펴본 결과 경제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수준이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6.9%인 반면, 중간층인 경우 8.0%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이 2배 이상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 학교생활 적응 정도

단위 %

구 분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전체(명)
경제 수준	어렵다	3.5	13.4	53.5	29.7	100(202)
	보통	1.7	6.3	50.8	41.2	100(585)

$X^2 = 16.697^{**}$

또한 설문대상 아동과 청소년들의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결석일수를 조사하였는데 세부변인 중 경제수준에 의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수준별 빈곤 아동·청소년의 결석률이 24.6%로 중간층 집단(17.9%)에 비해 6.5% 더 높았다. 특히 7일 이상의 결석은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9%로서 중간층의 4.1%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표 15] 학교에 가지 않은 날 수

단위 %

구 분		없다	1~2번	7일 정도	보름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이상	전체(명)
경제 수준	어렵다	75.4	15.6	4.0	1.0	3.0	1.0	100(199)
	보통	82.1	13.8	2.8	0.7	0.3	0.3	100(574)

$X^2 = 13.451^*$

3. 맺음말

조사 결과 중요지표 항목으로 제시된 대부분의 설문문항에서 아동·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에 따른 빈곤층과 중간층과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신체·정신적 고통은 경제 수준이 중간에 속한 아동·청소년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의 심각성은 일상적인 생활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영역을 아우르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빈곤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이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의 정도는 성인의 감내 정도보다 상당히 취약할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경제위기의 지속은 그 정도를 더욱 더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제위기로 인해 심각한 고통에 놓인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시적 효과를 노린 생활복지 차원의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이들의 아

픈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종합적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빈곤 아동·청소년도 모두 우리의 소중한 자녀이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감을 갖도록 독려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 

■ 참고문헌

- 강신욱·신영석·이태진·강은정·김태완·최현수·임완섭(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영호·남원석·노대명·류정순·석재은·설동훈·신명호·윤인진·이선우·이인재·장세훈·조명래·최현수(2006), 한국사회의 빈곤, 경기: 한울아카데미.
- 고득영(2004),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전략',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2004년 9월호, pp. 28-33.
- 고영선·최경수·신인석·임원혁·박진·한진희·신석하·박창균·이창용·박대근(2007), 경제위기 10년: 평가와 과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궤금주(2007), 빈곤이 취학 전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종단연구: 심리발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집담회 자료.
- 궤금주·유제민·김정미(2007),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 요인과 탐색요인 탐색-만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20권 제1호, pp. 1-19.
- 관계부처합동·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4),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 제49회 국정과제회의 자료집.
- 관계부처합동(2008), 세기적 위기를 선진일류국가 도약 기회로-2009년 경제운용방향, 2009년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 자료집.
- 구인회(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48호, pp. 82-112.
- 구인회(2003), 경제위기와 청소년발달-가족의 경제적 상실이 청소년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서울: 집문당.
- 구인회(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국가인권위원회(2007), 2007 빈곤과 사회권-기초생활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와 국가의 의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정준·김지혜·류명화·정익중(2006),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정혜(1998), 서울시 저소득시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광웅(1998), 경제위기와 아동,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3-18, 서울: 한국아동학회.
- 김광웅·최명선(1998), 경제위기와 아동발달, 숙명여자대학교 건강생활과학연구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26-42.
- 김미곤·양시현·최현수(2006), 한국의 빈곤동향과 정책방향, 보건사회연구, 제26권 제1호, pp. 3-35.
- 김미숙(2006), 지역사회 빈곤아동 지원정책 고찰-지역아동센터 정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제114호, pp. 78-90.
- 김미숙(2007), 위기의 한국아동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보건복지포럼, 제128호, pp. 5-20.
- 김미숙(2008),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39호, pp. 5-22.
- 김미숙·박민정·이상현·홍석표·조병은·원영희(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배화옥(2007), 한국 아동빈곤을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27권 제1호, pp. 3-26.
- 김미숙·조애저·배화옥·김효진·홍미(2007), 한국의 아동빈곤 실태와 빈곤아동 지원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균·이상은·이봉주·정원오·진재문·심창학·정재훈·안상훈·엄기욱·구인회·김환준·조홍식(2005), 비교빈곤정책론, 경기: 나남출판.
- 김혜은(1998), IMF시대의 청소년들의 소비행태와 가족생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99-119, 서울: 한국아동학회.
- 김희연·신현중·김정숙(2007), 경기도 빈곤아동 특성분석 연구,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 노인철·어윤배·이성기·김용하·김미곤·전학석·이상은·석재은(1995), 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제-자활지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성연(1998), 경제불황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및 아동의 적응행동,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21-37, 서울: 한국아동학회.
- 박순영(2007), 빈곤이 취학 전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종단연구: 성장발육,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집담회 자료.
- 박찬용·김진욱·김태완(1999),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방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현선·정익중·구인회(2006), 빈곤과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성인역 부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pp. 303-330.
- 배화옥(2007), OECD 국가간 아동복지수준 비교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제128호, pp. 73-87.
- 보건복지가족부(2008), 선제적 위기 대응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정책, 2009 연두 업무보고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미래세대희망플랜-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9~2013).
- 서울복지재단(2008), 능동적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활성화 전략-서울·부산·경기·충남 출연복지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서울복지재단.
- 신명호(2003), 빈곤가정 청소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도시와 빈곤, 동권 제62호, pp. 86-98.
- 신명호(2004), 교육과 빈곤탈출-저소득층 청소년의 학력저하 현상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제9호, pp. 29-65.
- 심영희(1998), IMF 시대의 청소년문제 양상과 과제, 한국청소년학회 편, IMF 시대 청소년의 소외와 참여(pp. 99-142).
- 여유진·김수정·구인회·김계연(2007),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불림,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경자·김은이·도레미·어유경(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4권 제1호, pp. 53-71.
- 유가호(1998), 경제위기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생활변화-소비행동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67-85, 서울: 한국아동학회.
- 윤홍식·조막래(2007),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양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 세계학술대회 창립 50주년 학술대회 자료집, pp. 287-291.
- 이정상·임희진·박창남·정익중(2008),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봉주(2005),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본 빈곤의 영향-아동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집담회 자료.
- 이순형(1998), IMF시대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의식과 소비행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123-140, 서울: 한국아동학회.
- 이해연·이태수(2001),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Ⅰ)-저소득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해연·황창순·김희진(1999),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와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장성자·김승권·정경배·김미숙(1999), IMF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세미나, 보건복지포럼, 제29호, pp. 53-58.
- 장혜자(2000), 빈곤한 아동의 현황 및 고찰, 한국생활과학회지, 제9권 제3호, pp. 257-270.
- 재정경제부(1999), 경제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정책구상, 경기: 재정경제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사단법인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2007), 사회양극화와 교육양극화에 소외되는 우리 아이들.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2007), 2007 아동복지정책아카데미 자료집.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2007), 2007년 신규회원기관교육 자료집, 동권 제32호.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2007), 빈곤가정 아동의 실태 및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현안 문제에 대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 제언.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2007), 지역아동센터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 제언.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2008),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동권 제43호.
- 정운찬·조홍식(2007),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익중·김혜란·홍순해·박은미·허남순·오정수(2005),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3호, pp. 105-131.
- 조영훈(2007), 경제위기 이후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한국복지국가의 전망, 2007년 한국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 pp. 87-110.
- 최기춘(2003), 세계화와 복지국가 변화의 다양성-미국, 유럽과 한국의 경우, 사회경제평론, 제21호, pp. 495-526.
- 최선희·김희수(2004), 빈곤아동·청소년 실태파악 및 정책방안 연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최충옥·강운선(1998), IMF 시대의 청소년 생활변화와 소외, 한국청소년학회 편, IMF 시대 청소년의 소외와 참여(pp. 17-98).
- 로버트 L. 하일브로너·레스터 C. 더로우, 이승훈 역(1985), 경제위기의 극복, 서울: 삼성미술문화재단.
- 한국개발연구원 편(2006),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2008), 경제위기에 대비한 사회정책 핵심과제,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청소년개발원(1998), 국가경제위기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방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도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허남순·오정수·홍순해·김혜란·박은미·정익중(2005), 빈곤아동과 삶의 질, 서울: 학지사.

취약 · 위기 아동 · 청소년들을 위한 **통합 복지 서비스 체제정비**의 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현철

1. 현황과 문제

경제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고통받은 것은 아이들이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문제가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때는 빈곤이 사회전체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고도경제성장 이후 두터운 중산층의 형성으로 빈곤의 문제는 한 동안 그늘에 가려졌다. IMF 경제위기가 불러온 사회 양극화는 빈곤문제나 복지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회 복지제도들을 갖게 되었다. 서비스의 절대량은 부족하지만, 각각의 서비스들은 저마다의 목표를 향해 세를 넓혀 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서비스들이 시범사업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본궤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전체적으로 양적인 확대는 반가운 일이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적지 않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한 눈에 조망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양상을 띠

고 있다. 이러한 복잡성은 수요자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물론 모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몇몇 방과후 서비스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가 된다. 그 밖에 새로운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확장되면서 복잡성이 더해 가고 있다.

조정이 필요한 통합 복지 서비스의 목록을 보자. 이 밖의 다른 많은 서비스들이 이들 통합 복지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지만, 일단 이른바 토털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열거해 보자. 먼저 취약 · 위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통합 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 스타트』,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복투)』, 민간에서 운영하는 『위 스타트』 사업이 있다. 이 세 개 사업의 수혜율은 대략 4%정도 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상 연령의 폭을 넓히고,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층 유입인구를 고려하면, 서비스 수요자는 100만을 훌쩍 넘어서고, 수혜율은 더 낮게 추정될 것이다.

드림 스타트는 지금까지는 교복투와 중복을 피해왔지만, 향후 드림 스타트사업과 교복투 사업의 확대 계획에 따르면, 중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드림 스타트는 '12년까지 663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며, 교복투는 '12년까지 100개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 스타트와 민간의 위 스타트는 현재 일부 중복지역이 있기는 해도 서비스의 중복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드림 스타트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어서 위스타트 사업은 현재 난관에 부딪혀 있다.

앞으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업은 서울시가 '09년에 시작한 『나우 스타트(NOW Start)』 사업이다. 나우 스타트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와 중복의 여지는 없으나, 향후 통합복지 서비스와의 관계 정립과 상호보완의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CYS-net과 교과부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된 Wee 프로젝트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업들과 통합 복지 서비스들 그리고 기타 복지 서비스들 모두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취약·위기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들의 체제는 갖추졌다. 문제는 이들 서비스들을 어떻게 촘촘히 지역사회 말단까지 효율적으로 채워나갈 것이냐의 문제이다. 우선 투자의 확대가 절실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할 것인지 해법을 찾는 것도 시급하다. 관건은 이런 것들이다. 어떻게

중앙부처간의 사업들을 연계·조정할 것이냐, 중앙부처 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또한 공공부문의 서비스와 민간의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합리적으로 연계할 사회공학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2. 개선의 방향

이러한 각종 서비스들이 정돈되어야 한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손대기는 쉽지 않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내 서비스들을 조정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교육과학기술부 등 타 부처사업과의 조정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각종 서비스들은 반드시 조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명확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각각의 서비스별, 지역별 사례들을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는 검토해야 큰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무엇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당연하지만 넘기 힘든 산 중의 하나다. 드림스타트는 학교밖 서비스로, 교복투는 학교내 서비스로 역할을 분담해서 동일 지역에 연계형 서비스로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서비스의 연계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 조정기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시군구 단위에서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드림 스타트 센터』를 통합운영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통

〈빈곤아동 밀집지역 통합서비스 제공 현황〉

(’08.12월말 현재, 단위 : 명)

사업수요자 (0~12세 빈곤아동 밀집지역 아동수)	빈곤아동 서비스 사업 수혜자				미수혜 아동수
	계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848,018	31,433	9,600	7,712	14,121(추정치)	816,585
100%	3.7	1.1	0.9	1.7	96.3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 사업수요자 : 기초생활 수급아동 및 차상위(120%) 계층 아동

합센터에 드림 스타트 센터의 공무원과 교육청으로부터 장학사 등을 파견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더 적극적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이외에 노동부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통합운영센터의 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드림 스타트 센터가 네트워크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종합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지역의 단위를 읍면동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 아동·청소년의 인구분포도 다르고, 수요도 다르며, 자원의 양과 질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형태와 전달방식은 지역에 따라 달라야 한다. 드림 스타트 센터가 네트워크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서비스 수행기관이나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드림 스타트 센터가 부분적으로 직접 서비스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성에 기초한 역할분화가 원칙이어야 한다. 허브기관과 서비스 기관의 엄밀한 역할 분담은 선진적인 제도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위스타트의 역할변신도 고려되어야 한다. 어차피 드림 스타트와의 중복이 예상된다면, 나우 스타트와 같이 보호필요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로 특화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나우 스타트가 서울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 지역의 보호필요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드림 스타트와 교복투, 그리고 보호필요아동을 위한 나우 스타트와 위스타트라는 구도로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망을 체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드림 스타트 사업을 확장하면서 각 지역에서 지금까지 위스타트가 축적한 사업의 성과를 충분히 살린 조정된 사업추진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위 스타트를 이끌어온 민간의 노력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통합 복지 서비스가 어떻게 CYS-net과 We 프로젝트와 연계되어야 하는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We 프로젝트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CYS-net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보건

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쉽게 연계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 서비스를 통합 복지 서비스와 어떤 식으로 연계할 지에 대한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은 향후 종합지원센터의 자리매김과 관련된다. CYS-net의 성공적인 사례들은 쉼터, 경찰서, 병원, 기업, 교회, 학교, 학원, 아동보호기관, 시청, 동사무소, 멘토 등 지역사회자원들이 잘 연계되었을 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이런 연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종합지원센터와 1388 헬프콜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예를 들어, 1388 헬프콜이 어떤 위상으로 자리잡아야 하는지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종 위기 관련 신고전화를 1388이 통합관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학대신고전화 1391은 보건복지129콜센터를 통해서 통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129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1388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시군구 종합지원센터가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통합적인 서비스의 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지원센터가 전달체계로서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 서비스 기능까지 함께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전달체계로서보다는 서비스 기관으로 남을 것인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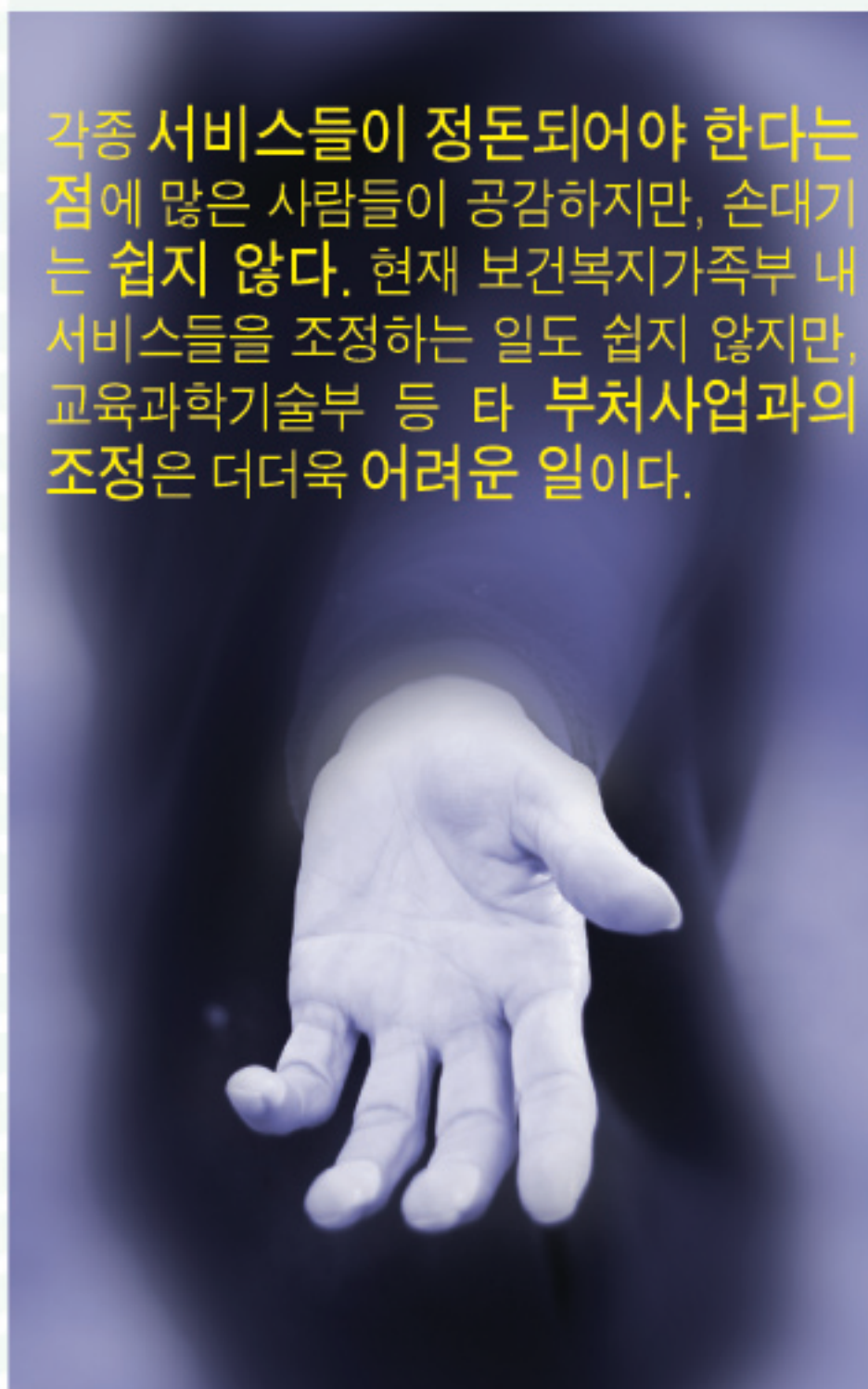
전문성에 기초한 역할 분담은 허브기관과 서비스 기관의 역할 분담에서도 중요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때도 중요하다. 종합지원센터(또는통합운영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전담공무원은 서비스 관련 행정에 대한 전문인력으로서, 특히 허브 기관의 전문인력으로서 지역의 전문인력을 연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나우 스타트의 꿈나무 서포터와 같이 전문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인력도 필수적이다. 직접적인 서비스 전문인력과 코디네이터 또는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 100만명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만의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서비스 영역별로 충분한 전문 코디네이터 인원을 통합운영센터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전문 코디네이터의 배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전담공무원과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물론 각 서비스 기관이나 서비스 대상자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두 가지 일에 좀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하나는 지역의 자원봉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모집·관리하여 각 서비스 기관의 부족한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역할이다. 현재는 각각의 서비스 기관이 직접 자원봉사인력을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허브기관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원봉사인력을 모집하고 교육하며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자원봉사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모집하는 노력 이외에 사회시스템을 갖추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인력의 체계적인 확보는 100만이 넘는 통합 복지 서비스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물적인 서비스 이외에도 가급적 1:1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절실하다. 선진 각국은 국가차원에서 자원봉사를 적극 권장하거나 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도 출범과 함께 경기부양법(Recovery Act)을 통해 자원봉사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코디네이터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기업과의 연계를 최대한 활성화하는 것이다. 물론 지자체와 민간의 연계를 통한 나우 스타트와 같이 서비스 자체를 민간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통합 복지 서비스모델의 도입도 필요하다. 지금도 적지 않은 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업의 복지 서비스 참여에 대한 동기는 충분하며,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지역별로 이러한 연계를 담당할 허브기관과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범부처적으로 통합 복지 서비스를 연계 또는 통합 운영할 센터가 필요하다. 단, 지역 맞춤형으로 센터의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 이 센터에는 전담 공무원과 전문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허브기관으로서의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하며, 특히 지역사회의 자원 중 자원봉사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과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각종 서비스들이 정돈되어야 한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손대기는 쉽지 않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내 서비스들을 조정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교육과학기술부 등 타 부처사업과의 조정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범부처적으로 통합 복지 서비스를 연계 또는 통합 운영할 센터가 필요하다. 단, 지역 맞춤형으로 센터의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



파리시의 취약계층청소년을 위한

특별예방정책(Prévention Spécialisée)

: 길거리교육 활동(l'Education dans la Ru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해연

1. 특별예방의 정의

이 프로그램은 위기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미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히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길거리교육'이라는 명칭과 같이 정책수행 장소가 길거리라는 지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프로그램 대상자들도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의미 외에 길거리라는 것은 가정이나 학교나 보호시설과 같은 제도권 기관에서 벗어나거나, 소속이 되어있어도 소속 행동반경에서 벗어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범주에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2. 역사

1) 기원 : 이 프로그램의 기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교육활동의 하나로 학교교육 제도밖에 있거나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들의 생활 속에서(dans leur milieu de

vie)’라는 명칭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몇 년 뒤에 이 정책의 주요 개념이 청소년 문제예방의 강화로 바뀌면서 지금 명칭인 ‘특별예방(Prévention Spécialisée)’으로 바뀌게 되었다.

2) **초기** : 청소년 문제에 뜻있는 성인들이 취약계층의 청소년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해 이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정책수행에 참가하는 관련 교육자들은 행정적으로 정해진 임기도 없었으며 이 활동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적 조항도 없었다. 이후 협회가 결성되고 활동을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과 정책을 수행하는 전문종사자인 교육책임자,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아동정책 담당자들이 합류하면서 제도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3) **1957년** : 협회관계자, 자원봉사자, 청소년 교육자, 청소년문제 전문가들이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국가청소년예방위원회(Comission Nationale Prévention)’를 창설하였다. 이 시기의 활동은 주로 문제청소년들의 치료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치료가 필요한 지역에서 그룹활동으로 이루어졌다.

4) **1963년** : ‘청소년 사회부적응을 위한 예방팀과 클럽 국가위원회(La Comité National des Clubs et Equipes de Prévention contre l’Inadoption Sociale de la Jeunesse)’가 창설되었다.

5) **1960년 말** : 1968년 5월 혁명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변화가 일어나면서 청소년 교육에 대한 각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여러 분야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이 활동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정책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6) **1970년** : 프로그램 수행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 협회와 정부의 재원을 겸하여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당시 정부의 주 재정지원은 아동복

지 부서(l’Aide Social à l’Enfance)로, 재정 지원이 시작되면서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정책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다.

7) **1972년** : 1972년 7월 4일, 이 프로그램에 대한 법령이 공포되면서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정부 각 관련 부처의 협력으로 길거리교육자 팀이 더 조직화되고 지방정부의 ‘청소년, 스포츠, 보건·사회활동(l’Action Sanitaire et Sociale et de la Jeunesse et des Sports)’부서에서도 지원하게 되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이 프랑스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활동의 발전과 더불어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을 교육(Education)과 치료(Curative) 중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특별예방활동 팀과 정부의 정책권한과의 갈등이 일기 시작하였다.

8) **1978년** : 청소년체육부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특별예방에 대한 정의를 요약, 대상청소년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특별예방은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제외되거나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인들과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출구를 찾도록 도와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9) **1986년** : 1월 아동보호정책의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지방정부의 아동정책업무의 하나로 아동복지(l’Aide Social à l’Enfance : ASE)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보호정책부 교육활동의 하나로 더 강화하였다. 이러한 전담부서의 창설로 프로그램 대상청소년은 예전과 같지만 정책

방법론에 있어서는 새로운 노력을 하게 되었다. 즉, 위기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가정에서만 찾지 않고 사회공동체와 사회역할의 역기능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등 새로운 방법론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10) **1990년** :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청소년정책 제도권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협회의 자율성에 맡겨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유연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고유의 특성으로 사회관계 형성이나 길거리교육자들에 대한 전문지식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교육자들의 교육이 강화되면서 1983년 당시 2,500명 이었던 길거리교육자의 수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3,000명으로 증가하는 발전을 가져왔다.

11) **2000년** : 프랑스 지방정부의회는 ‘특별예방에 대한 지방정부의 준거틀’을 발간하여 특별예방의 임무로 ‘고립된 위기청소년들의 사회관계회복’이라는 중요 개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12) **2007년** : 지방정부가 위기청소년이나 위험한 위험환경에 놓인 청소년을 위해 그들의 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강화 하였다.



3. 활동정책

1) 목적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위험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안전한 환경으로 복귀시키고자 세워진 정책인 동시에 다른 제도권에서

행해지는 청소년복지정책이 실패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수행되는 정책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탈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과 정신적인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에 두고 있으며 소년범죄 예방의 목표를 더불어 갖고 있다. 또한 이 활동은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얻는 것에 활동 목표를 맞추고 있다.

2) 활동담당부서

이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으로 파리시와 파리근교를 포함하고 있는 데파르트망 일 드 프랑스(Ils de France) 경우는 사회활동과 아동건강부의 가족교육부 산하에 청소년예방활동국(Bureau des Activités de Prévention pour la Jeunesse : BAPJ)을 따로 두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프로그램 수행은 협회에서 맡아 하고 있다. 공공정책의 하나로 법령에 의해 실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1986년 1월 6일 지방분권화법에 의해 사회활동과 가족법에 등록되었다.

3) 대상청소년

정부는 전체적인 아동보호정책 대상 연령을 10세에서 21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교육기간은 늘어나고 있는(대학 교육과정 이상) 반면, 청년들의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대를 확대시켜 16세에서 25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18세 이상의 성년이 된 청소년으로 학교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청소년의 수도 상당히 많고, 21세 이상의 청년들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예방 대상자들은 직업능력이나 전문기술 없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로서 이들의 수는 매해 6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 청년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의 청년실업률은 1993년 이후 다소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 주고 있는데 1996

년 이 연령대의 실업률이 23%였던 것이 2001년에는 16.4%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한다.

60년대 이후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시빈곤화 현상이 나타나고, 경제와 산업기술의 발달로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실업자의 증가는 물론 인간관계가 예전과는 다르게 변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1970년 이후 이혼율의 증가, 편부모 가정의 증가와 함께 변화된 가족구조는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청소년들에게 사회규범의 기준을 보여 주지 못했다. 또한 사회규제의 약화, 전통적으로 성인과 청소년을 화합시켜 주었던 사회관계의 약화, 학교교육 문화의 부재, 그리고 각종 문화의 다양성이 가져온 부차적인 역기능 등 여러 가지 사회변화로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기보다는 또래집단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긍정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에서 또래문화를 형성하고 있어 오늘날 청소년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4) 활동 실행방침

(1) 교육자 행동지침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이 프로그램은 활동의 역할이 중요할 뿐 아니라 교육자들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행동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① 매일 일상생활을 통해 이들을 만나 친교를 나눈다.

- 이는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강조하는 프랑스 청소년정책의 기본으로 특히 이 활동의 기본지침이 되기도 한다.
- 불안전하고 불분명한 청소년들의 환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② 어른으로서의 행동과 규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과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어른으로서의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 또한 교육자들의 언어행동은 청소년들에게 규범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립을 지켜야 한다.

위기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매우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이들에게 도덕적이거나 교육적인 훈계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즉시 거부반응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활동을 함께 할 때는 정부의 정책활동에 맞추어 청소년들을 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들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청소년들의 소리와 정부의 정책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부모역할의 중요성

이 프로그램은 길거리교육자들의 활동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이 부딪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 특히 부모와의 갈등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부모역할이 이 활동에 주는 의미는 첫째, 상징적인 의미로 가정에서 벗어나 있어도 가족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 둘째, 부모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미성년자로 문제해결방법이 있어도 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통해 청소년들은 부모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자녀교육을 비롯한 일상생활은 물론, 주말이나 방학기간에 가족과 시간을 갖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형성되는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감은 이들 미래의 부모역할에 모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부모의 협력 외에도 이 활동은 청소년 주변의 연계망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 이 활동에 참가하는 여러 유형의 교육자는 물론, 청소년들의 친구들, 가족, 그리고 이들이 모이는 지역주민들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특성

이 프로그램은 정책수행에 있어서 여타의 청소년 보호정책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 ① 서류상에 기재되는 청소년들의 보호 제한기간이 없으며, 행정이나 법적권한에 의한 결정이 아닌 상황에 따른 필요에 의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②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자유로워야 한다. 교육자들이 문제를 의논하고 방법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선택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주 컨셉이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와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프로그램 실행과정의 하나라 생각해야 한다.
- ③ 청소년들의 익명을 존중해야 하고 청소년 개인사항에 대한 서류상 기재는 하지 않는다.
- ④ 청소년뿐 아니라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제도적 장치에 의해 마련된 프로그램이 아닌 자유로운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청소년 그룹이나 청소년들의 다양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이러한 자유로운 운영과 함께 이 프로그램의 실행 방침은 특별예방정책에 근거하기 때문에 길거리교육자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결망과 협력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행방침에 근거하는 세부적인 지원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들 개개인의 직업생활과 여가활동을 위한 교육적 지원
- 취약지역 청소년들의 사회생활 규칙에 대한 의식개발 지원
- 사회생활과 지역문화에 참가하는 주민의식개발 지원
- 청소년들의 잠재능력개발 지원
-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지원

(3) 정보전달과 교환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길거리교육자들은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역행정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정보교환은 각 지역마다 또 교육자 개개인에 의해 주어지고 법률적으로 정해진 근거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닌 '비밀리에 교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전달 교환되어야 정보교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를 중재하는 기관인 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협회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청소년의 역할과 공공의 질서를 위한 청소년의 의무나 규범들에 부합되는 정책 활동을 해야 한다.

(4) 활동지역

그룹이나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이 프로그램은 활동의 형태가 자세하게 규정지어져 있지 않고 지역의 인구학적,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활동량이 달라지고 또한 접근방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이 달라진다. 이 활동은 교육적 지원형태로 주어지지만 매우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활동이 수행되어 학교교육 지원에서부터 문화, 운동, 직업활동, 직업교육 등 청소년들의 생활이나 취미활동 등을 고려하여 수행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장소 역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공공기관 등 시기와 필요에 따르는 적합한 장소를 찾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등 청소년들의 상황에 따라 지역의 유동성이 있다.

(5) 활동의 문제점

길거리교육은 위기청소년들을 제일선에서 직접 접하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정부정책을 기준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정책은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숙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이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을 청소년의 자발적인 사회참여에 대한 의욕을 주는 것이 아닌 사회안전에 돌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것에 최종 목적을 둘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지역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 활동이 청소년과 교육자들 간에 개별적으로 실행되고 있어 규격화된 활동결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늘 계속되어 오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 오늘날은 대상 청소년들을 문제범주별로 나누어 실행하고 있지만 이 방법 또한 범주별로 규격화된 평가기준에 의해 예방활동을 실시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예방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청소년 개개인의 문제해결보다는 청소년문제를 마약중독, 알코올중독, 청소년범죄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각 범주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을 쓰고 있어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접근방법이 약화되므로 실행방법은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셋째, 이 조직은 25년 동안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차츰 제도화되어 제도권으로부터 재정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교육자들의 권한이 제도권에 의해 상당히 약화되어 가고 있고 정부는 문제해결보다는 정해진 예산에 정책을 맞추고 있어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정책은 제도화되면서 오히려 정책효과가 감소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끝으로, 이 특별예방은 문제청소년들의 특별예방과 더불어 교육적 실천, 청소년 안전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법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4. 활동평가

이 활동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 프로그램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방법도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정책의 결과를 얻기 위해 나름대로 평가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마다 다른 평가방법과 평가목적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의 기본틀 내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 평가의 기본틀

(1) 평가 요구에 대한 분석틀

- 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 평가를 원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 평가의 관리 담당은 누가 하는가?
- 평가 대상은 누구인가?
- 중점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무엇인가?

(2) 평가 후 이어지는 추후 분석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활동계획 당시 이미 예상했던 결과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외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다.

(3) 지방정부의 아동복지 부서(ASE)의 정책방침에 따른 활동의 부합성을 평가한다.

2) 평가의 의미

지방정부는 이 활동을 지방행정 정책의 하나로 수행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정평가를 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두어 이 프로그램의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 평가는 지방정부와 길거리교육팀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지방정부가 지니는 평가의 의미는

- (1) 책임수행에 대한 결과
- (2)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운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홍보
- (3) 활동의 적합성 확인
- (4) 활동의 결과와 재정에 대한 보고



협회와 길거리교육 팀이 갖는 평가의 의미는,

- (1) 자신들이 수행한 활동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
- (2) 활동의 성격과 방법 등을 보여주는 도구적 역할

3) 평가의 특성

그러나 이 평가방법은 활동이 지닌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행정 평가 방법과는 점점 다른 것으로 차별되어 가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된다.

- (1) 특별예방활동의 평가는 활동에 대한 분석보다는 교육자나 청소년들의 입장과 태도만을 보여줄 수 있다.
- (2) 이 활동의 명칭처럼 예방의 의미는 정확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활동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다. 또한 이 정책은 늘 다른 청소년정책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따로 분리되어 이 정책만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특별예방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안전을 위한 사회 예방과 청소년 개인이나 그룹별의 문제를 진단하여 예방하는 교육예방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더 나아가

사회문제 예방의 의미도 있어 이 활동을 평가할 때는 이 세 가지 예방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복잡하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 어떤 면에서는 더 효과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각적인 평가는 청소년 문제를 여러 가지 면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서는 청소년보호관찰소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평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 연계 제도권 기관들과의 협력으로 길거리교육 팀은 1987년 ‘자가 평가 방법 기준’을 만들어 발간하였으며 협회와 지방정부는 평가에 대해 꾸준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4) 평가 도구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평가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규격화 되어 있는 활동보고서
- (2) 정책을 세운 지방정부와 자문위원회에게 제출하는 활동보고서
- (3) 활동이 수행되는 청소년 지역에 대한 관찰보고서

5. 길거리교육자(Éducateurs dan la Rue)

이 활동은 초기에는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길거리를 배회하는 문제청소년을 선도하면서 시작되어 차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협회를 결성, 조직이 발전되어 왔다. 특히 1985년 이후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담당자 팀이 강화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길거리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로 '길거리교육자'라고 명칭하게 되었다.

1) 지위와 역할

길거리교육자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되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에게 다가가 이들의 고민과 문제를 들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주로 길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교육자들은 위기청소년들을 최전방에서 만나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협회를 통해 일을 하고 있지만 일종의 공공서비스 역할과 임무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주된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회활동가로서의 역할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회교육자로서의 역할이다.

이 두 가지 지위를 통해 문제청소년들과 직접 만나 이들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들어 주고 함께 이들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자들은 청소년들과 직접 만나게 되고 이들의 생활 속으로 함께 들어가 접촉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규범 기준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들의 언어, 행동,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 '상징적인 준거틀(Référence Symbolique)'이 될 수 있어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런 이유로 이들에게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자들의 자질만큼 이들의 지위가 보

장되어야 한다. 즉,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협회들은 교육자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권한이 클 경우 이들의 지위에 혼란이 올 수 있어 협회는 제도권의 정책과 적합한 조율을 함으로써 교육자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이들의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구성

이들의 대부분은 특별교육을 받은 특별교육자(Educateurs spécialisés)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사와 청소년관련 교육자격증을 가진 자들도 함께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는 교육모니터(Moniteurs Educateurs)라는 직함을 가진 교육자들도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길거리교육자들의 주요 구성원은 대략 다음과 같다.

- 50.6% 전문 특별교육자(Educateurs Spécialisés)
- 8.8% 교육모니터(Moniteurs Educateurs)
- 3.7% 기술교육자(Éducateurs techniques)
- 2.3% 사회복지사
- 1.7% 체육교사
- 4.0%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전공자

2004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규모로 전체 길거리교육자 중 52.5%가 남성이고 47.5%가 여성으로 교육자의 남녀 비율이 거의 균등하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이 전체 교육자의 12%가 되는 반면, 전체 교육자의 4분의 1이 30세 미만이다.

파리 근교를 포함하고 있는 지방정부인 일 드 프랑스(Ils de France)에는 전체 83개 협회에서 825개의 교육자 자리가 있지만 매해 전체 교육자의 20%가 이 자리를 떠나고 있어 매해 약 10%의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들은 팀을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파리시(Ville de Paris)에는 21개의 협회에서 64개 팀의 길거리교육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교육자의 자리는 930개로 증가, 마련되어 있으며 앞으로 교육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다른 아동정책기관에서도 이 교육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3) 교육자의 직업전문성

이 활동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 직업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되면서 이들의 보수 역시 다른 정책 종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되어 가는 등 많은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 비해 교육자의 4분의 1이 이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직업의 전문성과 경험의 부족으로 이 프로그램의 질적 활동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육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적으로 길거리교육자를 교육하는 기관이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이곳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바로 길거리교육자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활동에 적합한 다른 분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교육자를 모집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

교육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직업적 능력으로 전문적인 지식(qualifications)은 물론, 활동경험(experience)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자의 50%가 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 이 경우는 경험 있는 교육자와 한 팀이 되어 경험을 쌓아가는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나 이 경우는 지방정부의 예산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직업 전문성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이들은 역할수행에 있어서도 제도권의 규격화된 활동기준과 평가기준에 의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1983년 관계부처의 보고서 자료에서 길거리교육자들이 문제청소년들의 비호자가 될 우려를 지적하고 있어 이들 활동의 제약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약을 조절하기 위해 교육자들은 늘 협력 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의 활동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자보다는 사회안전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6. 지방정부의 역할

1) 성격

이 정책은 지방정부의 청소년 보호정책으로 시행되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사회정책, 도시정책, 문화정책과도 연결되어 있다. 활동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어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서비스 범위로 이 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프랑스 지방행정의회(l'Assemblée des Départements de France)에서 공식적으로 이 활동에 대한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짓고 있다.

“특별예방 프로그램은 지방행정부의 권한 하에 지역의 특성에 의한 필요에 따라 임무수행의 유연성을 갖고 개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정책이 필요한 지역에 따라 상황에 적합하게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주요 역할

이 프로그램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지방정부의 아동복지정책에 맞추어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의 틀을 마련한다.
-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협회와의 협력방안을 세운다.
-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한다.
- 재정지원을 한다.

이러한 역할 중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협회들이고 협회활동의 대부분은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1985년 지방분권화 정책 이후 지방정부가 특히 청소년 예방정책을 강화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다른 청소년 보호정책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몇 년에 걸쳐 강화되어 온 사회안전정책, 소년범죄예방(1982), 지역안전문제정책(1985), 소년범죄예방과 안전에 대한 지역적 계약(2000), 학교교육의 어려움에 대한 예방정책(2001) 등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에 의해 더 많이 발전되어 왔다.

또한 지방정부가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오면서 더 발전하였다.

3) 정책 시행단위

이러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시(municipale)단위나 데파르트망(département) 아니면 코뮌(commune)단위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보다 더 작은 행정단위인 구(arrondissement) 단위의 행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예로 파리의 특별예방정책은 데파르트망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 파리의 각 구청의 활동은 아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정도는 파리의 구의 인구학적 경제학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는 각 구의 행정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주관하는 협회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장소를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4)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지방정부는 이 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자원으로는 인적자원, 물적자원(활동, 장소 등), 그리고 다른 부분의 지방정책 자원 등이 있다. 인적자원으로는 지역의 청소년전문가들이 청소년문제에 관심이 많은 자원봉사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활동을 하고 있다.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길거리교육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러 분야 청소년전문가인 특별기술교육자, 사회교육자, 사회복지사, 가정경제 자문, 심리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법관들의 협력도 중요해 이들 인적자원과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의 물적자원과의 연계는 청소년 활동의 장으로 주로 공공기관을 이용하기도 하고 활동의 성격에 따라 지역의 여러 시설을 이용한다.

정책자원은 다른 아동복지정책과의 협력으로 특별예방팀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른 정책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다.

5) 중앙정부와의 관계

이 활동에 관해 중앙정부는 법무부, 청소년체육부, 보건복지부와 같이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여러 부처에서 협력하고 있지만 특별예방 프로그램은 전체 아동복지정책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고 실제 활동수행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두고 있어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참여는 거의 없다.

7. 협회(association)의 역할

특별예방프로그램은 지방정부의 정책이지만 정책수행은 협회가 주관하고 있어 이 협회의 업무와 역할은 지방정부의 특별제도권에 두고 있다. 특별예방에 대한 국가협약에 따르면 협회는 협회자체의 목적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지방정부의 아동보호정책자문위원회가 결정하는 목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협회는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관이 되어 창설된다. 1970년대 초에는 지역의 자원봉사자들로 협회를 만들어 활동해 왔지만 최근 20년 사이 협회의 활동은 질적, 양적으로 상당히 발전해 왔다. 1985년대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더욱 더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을 거듭한 협회는 길거리교육과 함께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지역안전을 위한 정책까지 맡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예방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길거리교육자팀들은 특별예방이 문제청소년을 위한 고유의 역할보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더 치중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역할확대로 인해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과 청소년문제에 뜻을 둔 자원봉사자들의 감소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협회 고유의 역할과 지방행정과의 조절을 통하여 협회와 제도권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협회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지방행정의 아동보호정책과 협회의 역할을 조절하고 이 프로

그럼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협회는 지방행정지문위원회, 관련 행정공무원들, 그리고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로 인해 협회 대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즉, 활동을 주관하는 협회의 장으로서 활동에 대한 분석은 물론, 활동의 지역적 역할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공공의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까지를 수행해야 하는 다중의 책임을 맡고 있다.

협회에 따라 여러 개의 길거리교육팀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단 한 개의 팀만을 운영하는 협회도 있다. 그러나 협회의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협회가 운영하는 팀의 수보다는 단 한 개의 팀이라도 이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질이 더 중요하다. 이는 질적으로 우수한 활동을 수행하는 협회는 다른 협회에 좋은 모델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협회가 생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 전국에 있는 협회의 33.2%가 1972년 이전에 설립된 것이고 39%가 1973년에서 1985년에 생겼으며, 27.8%가 1986년 이후 설립되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협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함께 협회의 양적인 증가를 알 수 있다.

참고로 파리를 포함한 데파르트망인 일 드 프랑스(Ils de France)에는 총 83개의 협회가 있으며 1972년 전에 설립된 협회가 25개, 1972년부터 1985년 사이에 설립된 곳은 26개, 그리고 지방분권정책이 활발해진 1985년 이후에는 32개의 협회가 설립되었다.

전체 협회의 97.4%가 지방정부와 협정을 맺고 활동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협회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33.9%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협약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협회가 지방행정 단위인 데파르트망과 코뮌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협약을 맺고 활동을 하는 것이다.

협정을 맺는 방식은 3가지 방법으로 협약(convention), 계약(contrat), 허가(charte)가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협력관계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참고로 이 협력관계 방식의 통계를 보면, 전체 협회의 40%가 데파르트망과 연간 협약을 맺고 있으며 33.9%가 데파르트망(département)과 시(Municipale)와 동시에 계약을 맺고 있다.

협회의 재정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어 대부분의 교육자들의 보수도 지방정부가 지원한 협회의 예산에서 지급된다. 교육자들의 5% 미만이 지방의회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

· 자원봉사자

협회를 통해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길거리교육자 외에 자원봉사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이 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육자들과 함께 청소년들의 그룹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8. 예산

이 활동의 주 재정은 지방정부의 아동복지부서의 예산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재정지원은 확정된 연간 예산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상황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이 활동이 정해진 기간이 없고 익명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재정 지원방법은 지방정부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협회 간의 협정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정부 외에 이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은 코뮌의 지원과 가족수당공단(CAF)의 지원이 있다.

전국 규모의 특별예방 연간 재정은 1억3천만유로(2,080억원)이며 이중 지방정부의 아동복지부서 지원이 1억400만유로(1,664억원)로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808만유로(130억원)는 지방정부 외에서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이다. 지방정부의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정책 예산은 36%이고 아동복지 예산은 11%인데 비해 특별예방정책을 위한 재정은 0.3%에 불과하다.

9. 활동 성과

이 프로그램은 활동의 특성상 객관적인 평가가 어



렵기 때문에 활동의 성과에 대한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활동 자체보다는 이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 업무량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의 변화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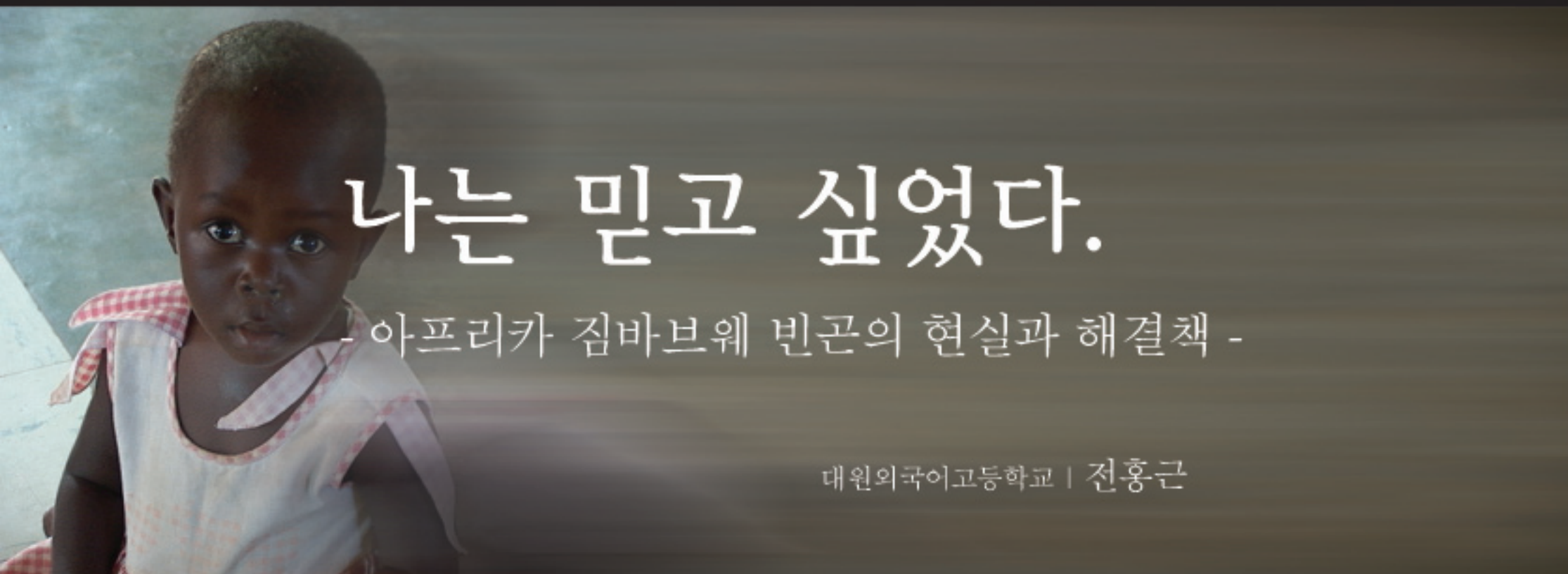
파리시를 포함한 데파르트망인 ‘일 드 프랑스’의 2000년도와 2007년도의 활동 업무량을 비교해 보면, 사회활동·아동·건강국(Direction de l'action Sociale, de l'Enfance et de la Santé : DASES)의 특별 예방을 위한 재정이 2000년도 1200만유로(192억원)에서 2007년에는 1800만유로(288억원)로 증가했다. 또한 업무담당에 있어서 전일제(Equivalent Temps Plein : ETP)로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2000년도의 근무자 수보다 72.7% 증가하여 총 297명의 직원들이 전일제로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길거리 교육자팀도 58개에서 83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행정업무의 증가는 이 활동이 확대 발전하고 있고,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07년 이 프로그램의 수혜청소년 수는 총 16,340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증가에 반해 활동의 기본 컨셉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즉, 이 활동이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강화되면서 활동의 주목적을 청소년문제보다는 지역안전에 두어 청소년문제에 소홀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활동 방법에 있어서 청소년 개개인의 개별적인 환경을 고려했던 초기의 접근방법과는 다르게 개개인의 문제보다는 전체 청소년의 문제를 범주화하여 이 범주 내

에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즉, 이들의 문제를 활동이 개시되는 시기의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가출, 약물중독, 실업, 빈곤 등 청소년의 상황만을 고려하고 개별적 환경이 고려되지 않아 효과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우선적으로 문제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제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문제는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데 목표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생활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소외되고 고립되어 제도권이나 사회조직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그룹으로 팀을 형성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나누면서 청소년 각자가 또래들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자아를 스스로 구축해 가도록 하는 이 활동의 고유한 접근 방법이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특별예방 프로그램은 다른 청소년보호 정책과는 차별화된 다른 방법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제도권에서 이 프로그램을 흡수하면서 고유의 특성과 효과가 감소되고 있어 제도적으로 실행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 ✈



나는 믿고 싶었다.

- 아프리카 짐바브웨 빈곤의 현실과 해결책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 전홍근

“이것이 세상이 끝나는 방식이다. 팡하며 터지는 소리가 아니라
홀쩍하며 흐느끼는 소리와 더불어.” - T.S. 엘리엇 「개종」

최근 미국 국무부, 휴먼 라이츠 워치, 국제 엠네스티, 그리고 국경 없는 기자회견에서 “세계 10대 최악의 독재자”를 선정하였다. 이 명단에는 수단 대통령 오마르 알 바시르도 있었고 북한의 김정일도 있었지만, 이 모두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독재자는 바로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였다. 그는 오마르 알 바시르처럼 수단 학살로 국제 재판소에 회부되지도 않았고 김정일처럼 로켓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의 죄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콜레라로 국민 4천여 명이 죽어갈 때, 인플레이션으로 교사들이 나라를 떠날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난 2월 혼자 짐바브웨를 다녀왔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를 갔다 오고 싶어 했고, 콜레라, 에이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에 바로 비행기 표를 끊었다. 한때는 아프리카의 빵 바구니로 불릴 만큼 위대했던 짐바브웨는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 인공적인 재앙을 목격하고 기록하고 싶었다.

하라레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나는 다른 세계에

왔음을 깨달았다. 내가 탄 비행기는 공항에 착륙한 유일한 비행기였다. 인천 국제공항, 홍콩 공항, 그리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공항의 밝고 깨끗한 시설에 비해 하라레는 너무 척박해 보였다. 전기가 돌아가지 않아 건물 안은 어두웠고 답답하였다. 비자는 미화 \$30만 내면 바로 받을 수 있었다. 모든 작업은 컴퓨터 하나 없이 수동으로 이루어졌고, 심지어 짐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마저 꺼져 있었다.

그러나 공항의 첫 인상과는 달리 하라레 중심가는 북적거리고 활발하였다. 교외 지역의 집들은 하나 같이 크고 뒤뜰마다 수영장이 있어 미국의 중상류층 동네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하라레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김기표 사장님을 만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전혀 아프리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 길은 관리가 되어있지 않아 울퉁불퉁하고 신호등 몇 개는 고장나 있었지만, 하라레 주위 건물이나 학교 등만 봐서는 살기 좋아 보였다. 하라레에서 콜레라 사망자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

다소 실망한 마음으로 빅토리아 폭포로 갔다. 그 곳

에서 만난 김성수와 김왕순 부부는 만나자마자 짐바브웨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 쥐 잡아 구워먹는 곳이다. 병원에 갈 돈이 있어도 약품이 없어 죽는 곳이다. 여기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 한국에서도 들은 얘기를 현지인한테 들으니 사뭇 느낌이 달랐다.

말로만 듣던 얘기를 실제로 보기 위해 나는 짐바브웨를 갔고, 짐바브웨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짐바브웨의 산업들이 대부분 망해서 실업률이 90%에 육박하고 있었다. 나는 할 일 없는 남자들이 대낮에 수백 명이 비어홀(커다란 술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에 모여 그나마 번 푼돈을 날리는 모습을 보았다. 집이 없어 길거리에서 사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다. 빅폴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없었고 죽어가는 환자들 밖에 없었다. 아는 약사 분을 통해 얻은 5kg쯤 안 되는 약품을 들고 병원에 갔더니 내가 병원보다 항생제, 감기약, 그리고 소염제를 더 많이 갖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한 여자는 아이를 낳은 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항생제를 구하지 못해 바퀴벌레 득실거리는 병실에 누워있었다. 바로 옆에 있던 에이즈 말기 환자 병실에는 첫 날에 5명이 보이더니 다음 날 2명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 또한 빌리지 보단 낫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다음 들른 장소는 “빌리지” 리고 불리는 원주민 마을이었다. 빅폴에서 30분 정도 외곽으로 나가보니 정말 숲속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벚짚과 나무로 만든 허약한 집을 짓고 살았고, 그 집들 안에는 파리와 빈 깡통 몇 개 밖에 없었다. 운이 좋아 강가에서 잡은 물고기 두 마리와 흙 같이 생긴 보리 비슷한 곡식을 먹고 있었던 남자 셋을 멀리서 한 아이가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아이를 불러서 보츠와나에서 사온 과자를 쥐어 주었다. 그 아이의 손에 새까

맴게 탄 때가 이 곳 사람들의 위생 상태를 말해주었다. 아이는 땅 바닥에 떨어뜨린 과자를 그대로 주워 먹었다. 그리고는 파리 밖에 없는 빈 집에 들어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드러누웠다.

나는 김씨 부부와 함께 다른 빌리지들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에게 과자와 옷을 나누어주었다. 우리의 차를 발견한 빌리지 아이들은 순식간에 수십 명으로 불어났고, 그 새카만 손들을 내밀며 과자를 달라고 소리 질렀다. 살면서 한 번도 황인을 보지 못한 아이들은 우리를 “흰둥이”라는 뜻을 가진 “기와”라고 불렀다. 마치 전설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 척수를 뺀 배를 집어 삼키려고 하듯이 아이들은 우리 차를 공격하였다. 차가 잠깐 멈춰서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고 떠나자 아이들은 우리가 갈 장소를 미리 알고 그곳에서 우리를 태연히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애들

이 계속 쫓아오자 우리는 아예 차를 돌려 그 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었고, 아이들은 자그마치 2km를 계속 따라오면서 과자를 달라고 했다. 결국 그 날 과자 한 박스를 다 나누어 주고 떠났다.

김씨 부부는 한 달에 한두 번 빌리지를 돌아다니며 과자도 나누어주고, 반경 500km내 유일한 탁아소

를 지어 고아 25명을 먹여주고, 에이즈 걸린 고아 22명에게도 점심을 제공하였지만 언제나 부족하다고 씩씩해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남들을 도우라고 하지 않았지만, 답답한 것을 못 참는 한국인의 성질 때문인지 그들은 한 명이라도 더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고, 그 현실을 바꿀 힘은 그들에게 없었다. 그 힘은 다른 NGO에게도, UN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없었다. 짐바브웨를 바꿀 힘은 오직 그 나라의 대통령인 무가베에게 있었지만, 그는 아직도 권력의 맛에 사로잡혀 있었다.

빈곤은 우리가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한 나라의 빈곤으로 인해 그 나라 국민들도 수없이 굶어죽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빈곤의 여파이다

짐바브웨가 빈곤을 탈출할 방법이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무가베에 대한 지지 때문이었다. 2억 퍼센트 넘는 인플레이션과 선생과 의사와 변호사들이 모두 떠난 현실에도 불구하고, 천 이백만 국민 중 오백만 명이 굶어 죽을 위기에도 불구하고 짐바브웨 사람들은 로버트 무가베를 지지하고 있었다. 물론 처음에 전쟁 영웅으로 찬양 받아 당선될 때 만큼의 인기는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킬 만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다. 학교에 선생님들이 없어 학교 못 다니는, 가게에 음식 없어 못 사먹는, 1인당 평균 연봉이 미화 \$200 안 되는 여건 속에서도 짐바브웨 사람들은 긍정적이기만 했다. 더 나은 현실이 꼭 찾아 올 것이라는, 정치적 혼란은 언젠가는 가라앉고 변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오른 짐바브웨 국민들은 비극적인 낙관 주의자들이었다.

짐바브웨는 60년 전에 식량, 자원, 그리고 교육면에서 모두 우리나라보다 우세하였지만, 지난 60년 동안 더 가난해지기만 하였다. 물론 높은 에이즈 감염률로 인한 조기 사망과 일부다처혼의 문화로 인한 가정의 불안함도 빈곤의 큰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엉터리 정치로 인한 국가 경제의 파탄이었다. 짐바브웨는 농사짓기에는 최적의 기후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2000년 초반에 백인들을 내쫓은 이후로 기술력이 없어 식량난을 직면하고 있다. 금, 은, 크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산맥을 갖고 있지만 불안한 정치 상황 때문에 외국 투자자도 국내 투자자도 찾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나라를 살리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하지만,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없을뿐더러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마저 작년 선거에서 보였듯이 무자비한 탄압을 받는다. 이건 명백한 인류에 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길 원하지 않는다. 세계 인권 선언과 보호할 의무인 R2P를 외친 유엔은 자원 부족과 주권 존중 정책을 핑계 들며 나서지 않고 있다. 옛 식민지를 다시 정복하는 이미지로 보일까 두려워하

는 유럽에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지구의 경찰이라 자부하던 미국은 자국 경제 문제에 빠져 신경도 안 쓴다. 짐바브웨 국민들 대부분 또한 외국 군사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프리카는 지난 25년간 유일하게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를 이룬 대륙이 되었다.

빈곤은 우리가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한 나라의 빈곤으로 인해 그 나라 국민들도 수없이 굶어죽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빈곤의 여파이다. 아프가니스탄은 빈곤으로 인해 정부가 모든 통제력을 잃어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의 본거지가 되었다. 소말리아는 정부가 아예 없어져 국제 해적질을 일삼고 있다.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3만여 명이 상이 목숨 걸고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건너가고 있다. 눈 감고 귀 막으면서 피했던 빈곤의 문제가 우리들의 비행기에, 우리들의 배에, 그리고 우리들의 해안선에 나타나고 있다.

나는 짐바브웨의 찬란한 미래를 믿고 싶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면 짐바브웨는 정말로 비참한 나라였다. 비록 내가 생각했던 혼란과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는 아니었지만, 하루에도 수 천 명이 파리 죽듯이 죽어갔던 것을 생각하면, 그 와중에 자신들의 세금을 영부인의 옷과 가방 사는데 썼던 대통령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 짐바브웨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빈곤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자

해운대여자고등학교 | 이유진

나의 장래의 꿈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항상 청소년 교육, 복지,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기자를 모집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응시하여 선정이 되었다. 많은 응시자들 중 12명안에 들어 뽑힌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첫 번째로 기고하게 되어 부담감도 있었다.

특히, 주제가 '빈곤'이라는 약간 무거운 주제여서 더욱 부담스러웠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나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기로 했다.

글이라는 것은 자신의 환경, 경험, 지식을 벗어날 수 없다. 느끼고 본 만큼 쓰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께서 잘 쓴 글 한편은 '학문의 최고 꽃'이라고 하셨다. 그렇다고 꼭 훌륭하고 정확한 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서툴더라도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과 진솔한 이야기를 쓰라고 하셨다. 그래서 먼 곳에서 찾지 않고 내가 다니고 생활했던 곳의 이야기를 쓰고 취재하기로 했다.

먼저 '빈곤(貧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절대적 빈곤: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상대적 빈곤: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주관적 빈곤: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3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된다.

주관적 빈곤은 개인 스스로가 생각의 변화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만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화가 진행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 정책의 영향으로 절대 빈곤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은 차츰 감소하고 있다. 그 반면에 개발과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

는 청소년은 늘고 있는 듯하다.

상대적 빈곤을 청소년들에게 느끼게 한 일이 내 주위에서 일어난 적이 있어서 그 일에 관해서 취재해 보기로 했다.

1년 전 쯤 부산의 A중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농성을 하는 일이 있었다.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농성을 한 이유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정확하게 평가받지 못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역마다 입시 정책이 다르겠지만 부산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내신 성적이 반에서 상위 60%안에 들지 않으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수가 없다. 나머지 40%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야 한다. 자신이 뜻한 바가 있어서 실업계학교를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으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나 특목고로 진학을 하려고 하니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생처럼 공부하고 생각해야 한다.

부산 모든 지역의 학생이 똑같은 입장인데 왜 A학교 학부모들만 농성을 했을까? 그것은 A학교에서 상위 60%안에 들지 못하는 학생들도 도로 하나만 건너 B학교에 가면 상위 20%안에 들어가는 성적이 된다. 그래서 행동이 빠른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다른 곳으로 전학 보냈고 그러지 못한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농성을 한 것이다.

특목 중학교도 아닌데 A학교와 다른 학교의 학력수준이 많은 차이가 나게 된 것은 A지역이 개발되면서 최신키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부터다. 단지 안에 공원, 독서실, 운동 시설, 학교 등 다양한 문화 시설과 여가 시설을 갖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다. 분양가도 높고 좋은 환경의 아파트이니 사업가, 교수, 의사 등 상대적으로

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살게 되었다. 문제는 아파트 단지 안과 밖의 경제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의 학교에는 아파트 주민의 자녀만 보내자는 의견이 나왔고 아파트 밖의 주민들에게서 약간의 반발이 있었지만 교육청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경제력과 사교육으로 훈련된

학생들은 학교 성적만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고,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A학교에서 좋은 내신 성적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입학할 때 450명이었던 학생들이 180명만 졸업한 학년도

있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A학교 학부모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A학교로 받아들이자고 했다. 교육청에서는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고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A학교가 존폐위기로까지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A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런 혼란을 겪는 동안 이 대단지 아파트 밖에서 사는 많은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듯하다. 다닐 수 없었던 학교를 어느 날 갑자기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속사정을 알고는 허탈해 했다. 일관성 없는 교육청과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찾아 움직이는 일부 학부모들이 이런 해프닝을 만들었다.

결국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A지역 학생들이 골고루 섞여서 A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영어 원서를 줄줄 읽는 학생과 겨우 파닉스(초보적 수준의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이 있다. 변변치 못한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났을 때 쓰는 말이다. 우리에게 이 말은 진정 옛말이 되어 버린 듯하다



〈B지역〉 ▲학교입구_ 복잡한 시장을 지나야 한다.



〈A지역〉 ▲학교입구 - 한적하고 조용하다.



〈B지역〉 ▲방과 후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_ 선생님들의 의욕은 높았으나 공간이 좁고 시설이 미비했다



〈A지역〉 ▲아파트 안에 있는 독서실
_ 시설은 좋으나 아파트 입주민만 사용 할 수 있었다



〈B지역〉 ▲체력 증진이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A지역〉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게 한 점은 좋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었다.

영어 교재)를 뎌 학생이 수업을 같이 하게 되니 선생님들은 학교수준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수준별 수업을 할 때 상급반은 아파트 안에 사는 학생들이 대부분 차지했고 하급반은 주택가에 사는 학생들로 이루어졌다.

직접 카메라를 들고 취재해보니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학습의 차이를 가져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빈곤 문제가 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교

육, 문화, 복지 등 생활 전반에 확대되어 있어서 격차가 너무 컸다. 이런 환경들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하는 큰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 우리의 부모 세대는 당시의 생활이 비록 어려웠으나 자식 세대에는 성실, 근면하게 생활하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날 빈곤 가정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된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속담이 있다. 변변치 못한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났을 때 쓰는 말이다. 우리에게 이 말은 진정 ‘옛말’ 이 되어 버린 듯하다. 지난 IMF와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이 빈부격차를 양극화 시키고 고착화시켰다. 오늘날 빈곤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상대적 빈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듯이 보인다. 한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이 생활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당연하고 가난한 집안의 학생은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 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다. 부만이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세습된다는 말을 연상시켰다.

가난한 부모가 자녀에게 희망 없는 빈곤을 대물림한다면 사회적으로 통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통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래도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 빠른 출산을 하라 추세 속에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잃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가 그들을 여러모로 배려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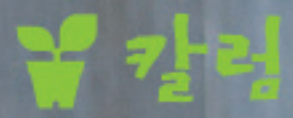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는 우선 학업 우선주의와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정책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는 복지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지역단위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빈곤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게 상급학교 진학을 할 때도 다양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 꼭 과외를 받

지 않더라도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 빈곤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면 한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이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꽃보다 男子’ 와 같은 현실 도피형의 드라마를 방영해서 청소년들에게 오락성 즐거움을 줄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에서도 끈끌하게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를 만들어 방영한다면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희망 없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 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표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경제적으로 좋은 환경에 있는 청소년이나 그렇지 못한 청소년도 ‘희망’ 을 가지고 화합과 소통을 해나간다면 모든 청소년이 세계화 시대에 맞는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청소년가출예방을 위한 대책

유낙준 신부(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2009년 봄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복합적인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위기라고 한다. 10년 전에는 기업체에서 해고되는 위기를 겪었고 지금의 위기는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더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위기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들을 한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과 그 암울한 상황의 한 중간에서 사람은 누구나 가출이라도 해서 자신의 암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가출한 성인들은 자신의 위험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가출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위험에 대해 방어를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10년 만에 다시 온 위기로 인하여 청소년가출이 30%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들은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어떤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을까?

가출은 집을 나오는 것이다. 때가 되어서 집을 나온다면 문제가 없는 가출이다.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청소년의 가출이라면 이는 무슨 안전 처 같은 방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집을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작년 보고서를 보면 집을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과의 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가출(63%)이었다. 일단, 가출은 자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즉, 가출은 자기가 놓여있는 위기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너무 폭력이 심해서, 너무 말이 안 통해서 집을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병리적인 관점에서 청소년가출을 보고 있는 것이 성인들의 대다수 견해이다. 청소년들의 문제는 청소년의 시각으로 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어야 인간적이 된다. 청소년의 가출을 성인의 시각으로 볼 때 성인들은 가출한 청소년을 돌볼 여유를 가질 수 없다. 병리적인 가출이기 보다는 살고자하는 인간적인 외침으로 가출을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가출의 경우 가출 이후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결과 가출이후 집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많은 청소년들은 귀가조치만 강제하는 길에서 외도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가출 이전 상황과 가출한 상황, 가

출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한 뒤 청소년가출을 보아야 한다.

첫 가출이 친구의 집이 대다수이나 곧 거리노숙으로 변한다. 거리노숙으로 변하는 날부터 밤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 밤새도록 아침햇살을 맞이하기까지 계속 걸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추위를 이길 수 있게 된다. 이 때 자신에 대한 서러움이 폭발치기도 하는데 이때가 바로 가출한 청소년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아웃리치(Outreach, 거리상담) 활동은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하다. 이때 가출한 청소년을 환대하는 만남이 중요하다. 아웃리치의 최고의 가치는 환대(Hospitality)이다. 아웃리치 활동을 통한 만남으로 인해 집으로 귀가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여기서 놓치면 노숙 청소년으로 전락하게 된다. 밤에 실컷 걸어다니다가 지친 몸을 쉬게 하고 다친 부위에 약을 바를 수 있고 요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드랍인센터이다. 이처럼 아웃리치센터와 드랍인센터는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Street youth)과 노숙청소년(Homeless youth), 버려진 청소년(Exposure youth)들을 직접 찾아가 위기로부터 구출하고 착취, 학대 및 비행을 예방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내의 여러 서비스와 연결시켜주고 필요할 경우 그 즉시 상담, 의료 등의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아웃리치센터와 드랍인 센터는 가출한 청소년을 초기에 만날 수 있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정책인 것이다. 700만 도시의 홍콩은 24개의 아웃리치센터가 있는데 우리는 고작 서울과 대전 두 곳뿐이다. 그러므로 아웃리치센터와 드랍인센터의 설립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출청소년들 중에는 아무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도 절대 오지 않거나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 이유는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특성을 지닌 아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누군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 아니라 심지어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도 모르고 어디에 요청해

야하는 하는 지도 모르거나,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결국은 또 해를 입을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들로 해서, 도움의 손길을 스스로 거부하는 아이들이다. 이들 스스로가 서비스를 찾아오지 않거나 거부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이들은 대부분 성인 노숙자로 성장할 것이고 그 결과는 개인적 불행을 가져올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우리사회가 부담해야하는 비용 또한 클 수밖에 없다(미국에서는 초기 아웃리치활동에서의 만남이 이후 노숙에 따른 제 비용보다 16배나 차이가 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를 따르면 아웃리치센터로 인해 16배의 비용절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숨어 있는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가서 이들에게 우리사회가 관심과 배려를 갖고 있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아웃리치센터와 드랍인센터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그들'로 보이는 것을 '우리'로 한 울타리 속의 형제자매로 세우는 것이다. 🍀



▲미술치료



▲김장하기



▲동영상페스티벌-체험부스



▲Who_am_i 촬영을위한교육

〈대전광역시 청소년 센터〉
연락처 : 042_223-7178-9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42-6 보육센터 4,5층



NYPI NEWS

■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 내방

2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 내방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숙 원장의 업무보고와 장관의 임직원을 위한 격려말씀이 있었고 이후 장관과 임직원의 대화시간이 마련되었다.



■ 제1회 글로벌역량개발 전문가 연구포럼 개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월 20일 한국교원총연합회 2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글로벌역량개발 전문가 연구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의 목적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의 신(新)성장동력인 아동과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의 글로벌 환경 변화



트렌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염진수 IWO 소장과 고기복 KOVA 이사장이 각각 '국제워크캠프기구(IWO) 청소년 국제활동 및 글로벌 인재개발 발전방안', '(사)한국해외자원봉사단원연합회(KOVA) 활동 및 글로벌 인재개발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김소희 박사, IWO 청소년 국제활동 참가자 이두환,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이원용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 개원 20주년 기념 아동·청소년 긴급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월 27일 한국교원총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이라는 주제로 아동·청소년 긴급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김광웅 교수, 서울대 심리학과 박금주 교수, 중앙일보 사회정책팀 김은하 기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모상현 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후 '경제위기 하 빈곤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대책'이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에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윤영득 사무관, 경기도청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이철섭 과장,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아동정책연구소 이향란 소장, 한국청소년쉼터 협의회 유낙준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참가

이명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3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 -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 자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17개 국책연구원이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의 세부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청소년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3월 12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청소년관련학과 교수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백석대학교 박철웅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한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 검정 개편 방향', '청소년지도사 실습 활성화 방안'이라는 소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에는 순천향대학교 송병국 교수, 평택대학교 이민희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헬프콜 1388(국번없이)로 전화주세요!
 내 옆에 꺼내 걱정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돌아봐 주세요!
 어려운 이웃집 아이들을 한번 더 살펴봐 주세요!
 빈곤아동 · 청소년 지원단체에 많이 후원해 주세요!

빈곤가정 아이들에게 희망을



경제적인 문제로
 2008년 2학기 이후 학교에
 학원이나 과외교습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학원이나 과외교습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다
 최근 부모님이 일자리를 잃었다
 2008년 2학기 이후 학교에 7일 이상 가지 않았다

경제위기로 아동의 학습 중단 및
 보건의료 · 정서적 불안 · 가족해체 등의
 항목에서 빈곤층 아이들이 중산층 아이들보다
 더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지역 7개 자치구 초 · 중생 814명 대상, '08. 5월)

